



작은도서관 독서지도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고독(古讀-고전을 읽는)한 중딩들

- 중학생 인문고전 독서지도안 -

이 아 영

구성중학교

고독(古讀-고전을 읽는)한 중딩들

- 중학생 인문고전 독서지도안 -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다독과 속독에 치우친 잘못된 독서습관을 바로잡고, 깊이 있는 책읽기를 통해 생각의 힘을 길러 줄 수 있는 독서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 읽은 책은 많아도 책의 내용을 물어보거나 어떤 점이 좋았냐고 물었을 때 제대로 답하는 아이들은 드물다. 양적인 독서에 치우치다보면 깊이 있는 책읽기가 힘들어지고 창의력과 사고력의 발달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이에 인문고전 독서프로그램을 통하여, 중학교 시절 바른 가치관의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프로그램 구성

- 기 간 : 2015년 5월 17일 ~ 7월 19일
- 운영 시간 : 14:00 ~ 16:00 (총 10차시)
- 참여 대상 : 고전읽기에 관심있는 중학생들
- 장 소 : 대치1작은도서관

3. 자료 선정 기준

- 동양고전 중 가치관의 형성에 도움을 주고, 공감에 걸맞은 내용 위주로 발췌
- 다양한 동양고전을 접하여, 수업을 마친 후 내가 맘에 드는 고전을 골라 정독할 수 있도록 차시별로 다양한 고전의 자료를 소개
- 보조자료로 관련 영상들을 함께 사용

4. 운영 방법

- 사전에 홍보를 통해 고전읽기에 관심이 있는 중학생들을 모집
- 프로그램 진행 전 평가를 통해 (주)날말의 <독서능력측정평가> 실시
- 5회에 걸쳐(10차시) 모듈식 수업으로 프로그램 진행
- 프로그램 진행 전 참가자들 모두 (주)날말에서 <독서능력측정검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참가자들의 독서능력 정도를 고려해 수업을 실시

5. 프로그램 평가 방법

매차시 수업 마칠 때마다 그날의 수업을 통해 배운점, 느낀점, 실천할 점을 적도록 해서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6. 프로그램 세부 계획

차시	세부목표	선정 자료	관련 활동
1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가?	자체 제작 PPT *지식채널e-인문학의 힘	- 네임텐트 만들기 - 이 수업을 통해 배운점, 느낀점, 실천할 점 적기
2	友	*명심보감-친구를 잘 사귀어라	짱구(짱좋은구절) 책갈피 만들어 친구에게 선물하기
3	질문하는 힘 기르기	*EBS 다큐-우리는 왜 대학을 가는가? 하브루타 영상 *2010년 G20정상회담 폐막식 오바마대통령 질문이야기	말문을 터라!!! 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방법 하브루타 체험
4	孝	*몽구-계모를 감동시킨 효심의 민자건	- 효의 정의내리기 - 효를 그림으로 표현해보기 - 구체적인 실천 덕목 세우기
5	學	논어	- 이미지카드에서 내가 생각하는 學의 이미지를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하기 - 내가 생각하는 學이란? 學의 정의내리기
6	德	*몽구-초장절영 초나라장수 장왕이 신하의 실수를 덮어준 이야기	- 용서와 관련된 나의 경험담 나누기 (용서했던 경험, 용서 받았던 경험 등) - 부족했던 덕목 찾아보기
7	性品	명심보감-성품을 경계하라	- 씨앗카드에서 나의 성품고르기 - 씨앗카드에서 발견한 나의 성품으로 나를 표현해 보기
8	知慧	*안자춘추-제나라 경공때 명재상 안자의 첫 번째 이야기	- 지혜와 관련된 나의 경험나누기 - 지혜로 위기를 모면한 경험 - 지혜없음으로 위기에 직면한 경험
9	계획	손자병법	손무의 손자병법처럼 내가 관심있는 분야의 지략을 담은 법을 패러디 해서 작성해본다.
10	禮	소학	- 내가 생각하는 禮(예)란? - 내가 기대하는 우리집에서의 禮 - 내가 기대하는 학교에서의 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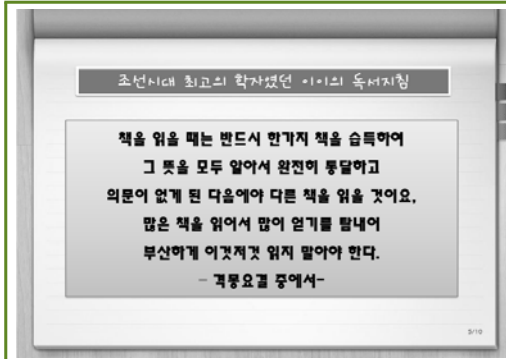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고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차시	1	시간	60분
세부 목표	고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심어주고,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한다.				
선택 자료	- 인문학의 힘 - EBS다큐 우리는 왜 대학을 가는 가 中 조용한공부방 VS 말하는 공부방 대조실험 영상 (or 이야기로)				
준비물	인문학의 힘 영상,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가? ppt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10')	- 자리 정돈하고 주위를 집중시킨다. - 네임텐트를 통해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 이 모임에 참석하게 된 계기 - 이 모임에 기대하는 바 - 자신의 관심분야				
전개 (40')	- 다독과 속독에 치우친 잘못된 독서습관, 만화나 판타지 위주, 흥미 위주의 독서습관 등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고전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고 위인이 된 사람들의 사례 - 고전읽기를 통해 삼류대학에서 노벨상 최다 배출 대학이 된 학교의 사례 '인문학의 힘' 영상 시청 - 효과적인 고전읽기 방법 소개				
정리 (10')	-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선생님의 강의를 끝난 후, 종이를 나눠주고 오늘 수업을 통해 배운점, 느낀점, 실천할 점을 적어본 후, 적은 것을 간단하게 서로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다음 차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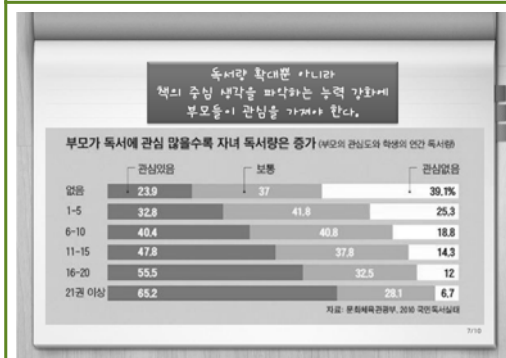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가? p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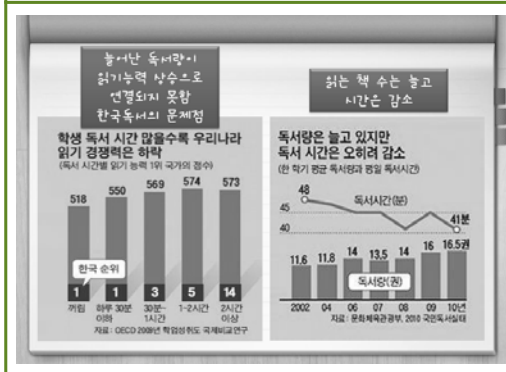
	부모의 독서에 대한 관심은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시작됨. 아이를 위해 수십 만원대의 전집도 아낌없이 사주고,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에서도 책임는 엄마(리딩맘)들이 자원봉사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학교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예전에 비하면 요즘은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이 많이 신설되었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좋은 학교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유 장서도 풍부하다.
	이러한 독서환경으로 인해 아이들은 책과 더욱 가까워진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책을 많이 읽는 아이, 두꺼운 책도 거리낌 없이 보는 아이들을 부러워한다. 하지만 다독과 속독에 치우친 독서습관은 바람직하지 않다. 독서장제(금장, 은장, 동장), 다독아, 다독학급 등의 시상제가 있는 학교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권수로만 시상을 할 경우, 두꺼운 책은 보려고 하지 않게 될 수 있고 제대로 보지 않고, 자꾸만 새로운 책을 보는데 급급해 할 수도 있다.



2012년 1월 17일 조선일보 기사의 내용이다.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무조건 책을 끝까지 빨리 읽고 다 이해했다고 말하지만 많이 읽고, 빨리 읽는 한국 학생들에게 독서후 요점을 말해보라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 아이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다독과 속독을 즐기는 아이들 -두부류 : 책을 정말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된 경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습관이 형성된 경우 바람직한 모델인 전자에 비해 후자는 반작 독서가가 될 확률이 높다. 후자는 부모나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 실제로 부모가 독서에 관심이 많을수록 자녀의 독서량은 증가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는 부모들이 독서량 확대뿐만 아니라 책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능력 강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독아 . 다독학급 시상 전면 페이지				
구분 내용	대상 학년	심사 및 시상시기	심사 기준	심사자
동장	전학년	11월 20일(토) 12월 5일 (월)	30권 이상의 도서를 읽고 10편 이상의 독서 감상문을 쓴 어린이 (1학년은 한 줄 독서록 읽두, 2-6학년은 생활本の 독서록 & 개별독서록을 활용한다)	담임
운장	전학년	11월 20일(토) 12월 5일 (월)	50권 이상의 도서를 읽고 20편 이상의 독서 감상문을 쓴 어린이	담임
금장	전학년	11월 20일(토) 12월 5일 (월)	70권 이상의 도서를 읽고 30편 이상의 독서 감상문을 쓴 어린이	담임

도서관도 서점도 학습만화에 손이 가요

올해 사랑받은 어린이책은?
'Why?'
'Who?'
'내일은 실험왕'
등 대출 상위권...
탐정 추리물도 인기
'마법 천자문'
'먼나라 이웃나라' 많이 팔려
신간 '시간 가게' 눈길

교보문고·영역진 스테디셀러의 약진을 출판계의 키워드로!
-2013.12.18일 소년한국일보-

■ 올해 텍스트셀러 목록
내일은 실험왕 시리즈(한화)
마법 천자문 시리즈(한화)
먼나라 이웃나라 시리즈(한화)
실험왕의 겨울 공(동화)
시간 가게(동화)
이집트(주는 나무)(동화)
왕비의 황아 달(동화)
지하 100층(서점(그림책)
크리 해이를 스텔라(한화)
한복사 편지 시리즈(교학)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교학)
100층서점 시리즈(교학)
/전북전서점 4곳 집계

독서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즐거움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요즘의 독서 행태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중학교 도서관에도 마법천자문, 내일은 실험왕, 내일은 발명왕 등이 인기 도서로 얹혀지고 있는 현실.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만화책 이동

된장찌개 VS 정크푸드



인문고전독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고전을 된장찌개, 흥미위주의 판타지류를 햄버거나 피자, 만화책을 과자나 초콜릿 등에 비유해서 설명한다.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지만 밥 먹기 전에 햄버거나 피자, 과자나 초콜릿 등을 먼저 먹으면 밥맛이 없어서 결국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되는 법이다.
하지만 밥을 먹은 아이는 나중에 필요에 따라 간식으로 햄버거나 과자 등을 조금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민감한 이슈를 해결하는 노련한 협상가 제 8대 UN 사무총장

공자, 노자, 맹자 등 고전문학에서 내면의 힘을 얻었습니다.



충북 음성외 농주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고등학교 때 여세이 경시대회에서 수상함으로써 미국을 방문해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잠시 만난 경험을 계기로 외교관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좋은 책의 선정기준

-바른 가치관을 세워주는 책-

백범일지

명심보감, 소학 등의 인문고전이나
백범일지, 난중일기 같은
위인 자서전을 읽히는 것은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직접적, 결정적 역할을 한다.

백범일지를 읽고 느낀점을 말하는 시간
한 아이가 김구선생님이 일본 사람들에게 고문을 받고 부끄러워서 우는 장면이 충격적이고 감동적이었다면서 자기도 김구선생님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아이가 감동했다는 부분은 1911년 신민회 사건에 연루되어 백범이 투옥되었을 당시 일본 순사들이 관련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온갖방법을 동원해 고문하는 장면이 나온다. 밤새 고문을 당하고 감방에 돌아온 김구는 눈물을 흘린다. 고통스럽거나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눈물을 흘렸다.
일본순사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 밤을 새워가면서 최선을 다해 고문하는 일을 하는데, 자신은 이제까지 나라를 위해 밤 새워 일해 본적이 있는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 것이다.
이런 결심의 기회가 인생에 몇 번이나 찾아올 수 있을까? 고전을 읽은 자에게만 찾아오는 특권이다. <송재환 저 초등고전읽기혁명중에서>

고전을 통한 꿈의 잉태

어려서부터
대학이라는
꿈만 주입된
아이들

대학입학 후
무엇을 공부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

1985~2007년
아이비리그 외
14개 대학
인국학생들
중도포기율
44%

자유인은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사람이고
노예는 남의 꿈을 이뤄 주는 사람이다.
-플라톤-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꿈을 가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부모가 꿈을 주입시키거나, 인위적으로 꿈을 가지게 했을 때, 이런 꿈은 아이에게 아무런 원동력이 되지를 못한다.
부모의 철저한 관리에 의해 명문대학에 가더라도 꿈이 없는 아이는 결국 주저앉고 만다.

진짜 꿈을 심어주기 위한 방법은 고전 속에 답이 있다.

링컨대통령
• 폴아저씨의 오두막을 읽고 노예해방의 꿈을 꾸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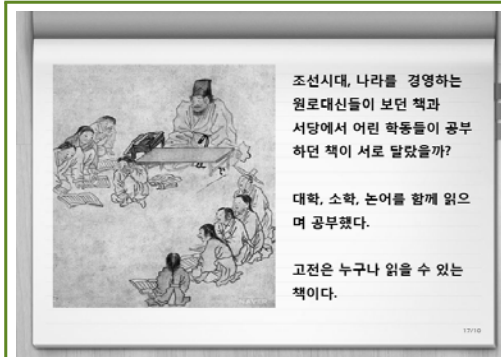
에디슨
• 자연과학과 실험과학 입문을 읽고 발명가의 길로 들어서게 됨

파브르
• 시튼동물기를 읽고 곤충의 생태를 연구하게 됨

고전이란?
오래된 책?

고전을 멀리하는 이유는?

- 고전에 대한 편견 때문
- 늘 읽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못읽는 책
- 누구나 재독을 알고 있지만 누구도 잘 읽지 않는 책



두 권의 책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민족
세계 인구의 2 % 밖에 되지 않는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의 22%가 유대인
2013년 12명의 노벨상 수상자 중 절반이 유대인

하버드 재학생의 비율이 한, 중, 일 세나라를 합쳐도
4.5%밖에 되지 않는데 유대인은 30%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가지가 고전
읽기이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토라와 탈무드를 읽
으며 자란다. 이 두권은 유대인의 고전 중의 고전이다.
유대인들은 매일 이 책들을 읽고 가족과 함께 토론
한다. 토론과정에서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의 질문을
이끌어 낸다.

어렸을 때부터 토라와 탈무드 교육을 받은 덕분에
유대인 중에는 문맹자가 한명도 없다는 통계가 있다.
(송재환 저 초등고전읽기혁명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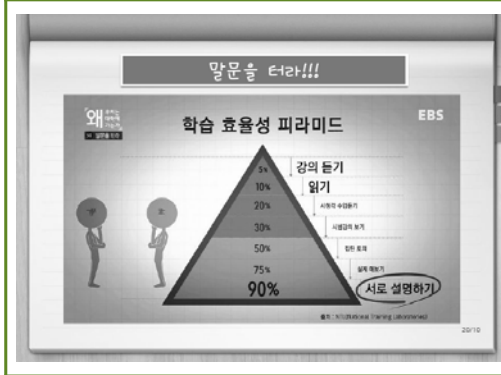
2010년 9월 G20 서울정상회의 폐막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질문

EBS 다큐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5부 말문을 터라'
중 한 부분입니다. EBS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학생들을 조용한 공부방과 말하는 공부방, 두 그룹
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하고 어느 팀이 더 시험을
잘 봤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죠.

달랐던 것은 3시간의 공부법, 어느 공부방이 더 시험을
잘 봤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말하는 공부법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
는 생각들을 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인지를 바라보
고 있는 또다른 눈이 있습니다. 이것 메타인지라고 하죠.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파악하
는 능력입니다. 즉 나 자신을 아는 능력이지요.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를 상승시킬 수 있을까? 바로 '설명'
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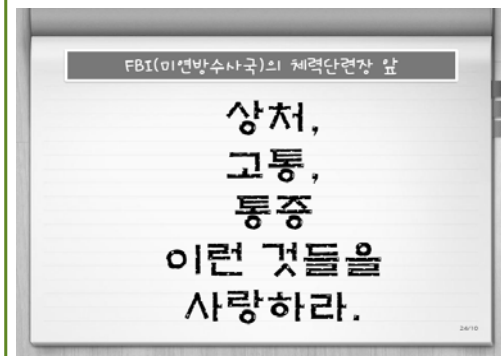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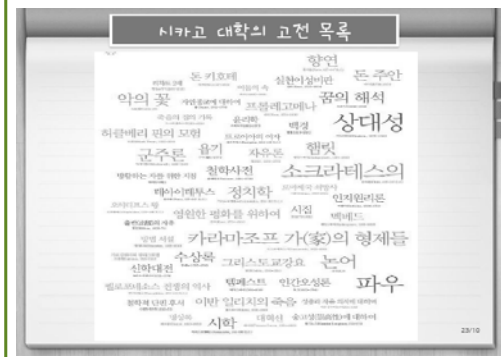
뭔가를 말로 설명해보면 압니다. 듣기만 하며 지식을 집
어넣은 것과 달리, 말로 설명을 하면 내가 아는 것과 모
르는 것, 필요한 것과 필요없는 것이 생각으로 정리되는
것을 느끼죠.

이 학습 피라미드는 공부를 한 다음 24시간이 지난 후에
남아 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듣는 공부 5%가
남지만, 설명하는 공부는 90%가 남습니다. -EBS 다큐
우리는 왜 대학을 가는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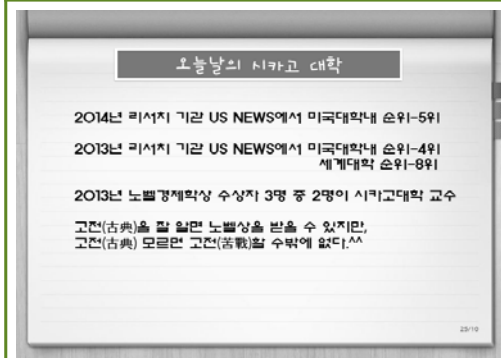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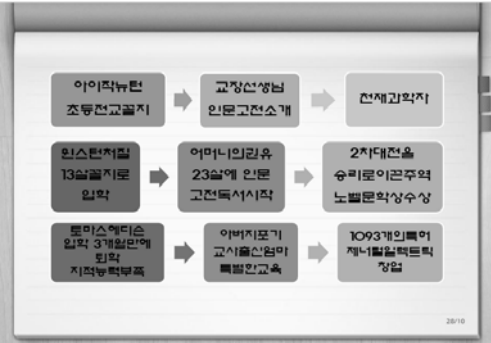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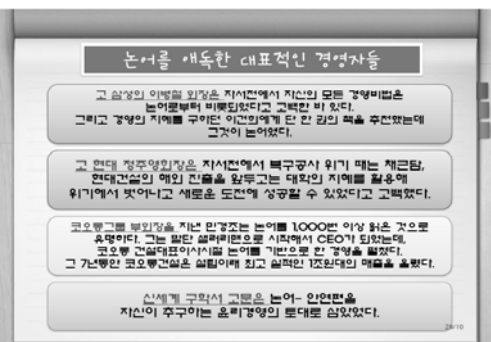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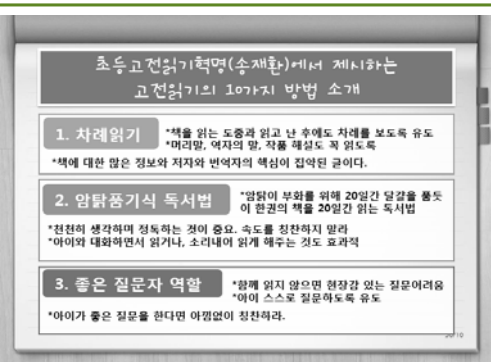
1929년 인문고전 독서교육의 광신도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허친스가 시카고 대학의 5대 총장으로 취임 시카고플랜 시작
시카고 플랜 : 위대한 고전 100권을 달달 외울 정도로 읽지 않은 학생은 졸업시키지 않겠다. The great book program

세인트존스 대학은 학과나 전공이 아예없다. 커리큘럼 이라고는 4년간 고전 100권 돌파가 전부다. 세인트존스 대학 신입생 중 고교선적이 상위 10% 안에 들었던 사람은 10% 내외다. 미국의 명문대 벨트인 이른바 아이비리그에는 상위 10% 출신이 100%에 가깝다. 명백하게 우등생들과 열등생들의 경쟁이다. 4년후 변화가 일어난다. 세인트존스에서는 학자와 사상가들이 쏟아져 나온다. 아이비리그에서는 월급쟁이들이 쏟아져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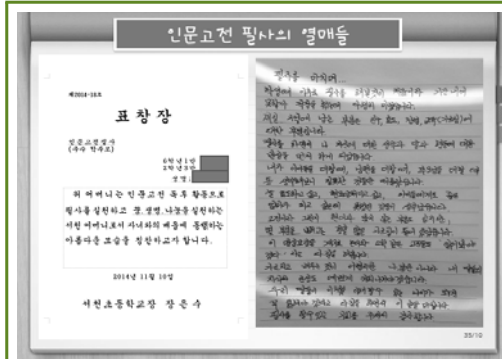


30살에 총장이 된 로버트허친스가 학생들에게 고전 백권을 달달 외우도록 했는데 처음에는 반발이 엄청났다. 학생들은 비명을 질렀고 열권, 스무권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50권을 넘어가면서 학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질문했으며 토론하고 사색에 잠겼습니다. 고전 백권이라는 지성의 숲을 통과한 학생들은 3류 대학이라는 열등감을 버리고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두뇌는 서서히 나아지지 않는다. 책을 읽는 것은 뇌에 근육을 만드는 작업이라 힘들다. 운동으로 몸에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고통을 가져온다. 그것을 견디어 내면 몸에 근육이 붙듯이 우리 뇌에 생각하는 힘이 생긴다.



	인문학의 힘 동영상 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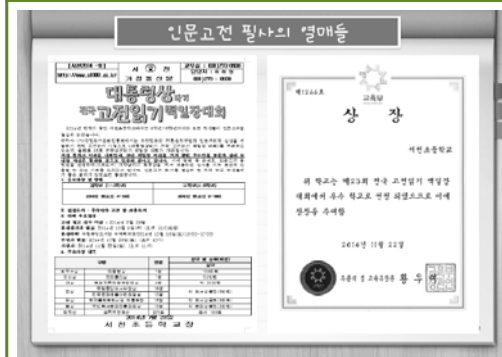
4. 함께 읽기 * 부모님이나, 친구, 고전읽기 그룹과 함께 고전을 읽는 환경 조성 * 함께 읽으면 재미를 느끼거나 생생한 공유가 가능하며, 자연스럽게 시아가 확장되고, 지속적인 고전읽기가 가능해진다. 5. 한구절 공책 만들기 * 마음에 드는 구절은 말줄을 긋거나 명언 집을 만들어 병도로 관리한다. *명언집은 부담이 없고 평생 간직할 수 있는 보물 * 어린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명언을 살펴보면, 현재 아이의 고민과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 * 아이의 삶이 기준이 될 구절을 발견하는 게기가 될 수 있다. 6. 책에 애착을 가지게 하라. *순때 문은 책을 간직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책을 소장하고 싶게 만들어라. *책표지가 새까맣던 것에 대한 성취감과 쾌감 *책표지에 구입한 날짜, 읽기 시작한 날짜, 연독한 날짜 표기 후, 고전읽기에 대한 한줄 핸드와 서명을 하게 하라.	
7. 음독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방법 *한, 중, 일 중 한자실력이 가장 우수했던 조선.(천자문) *시각과 청각적 자극을 동시에 주는 음독은 아이의 학년이 낮을 수록 효과적 *집중력, 읽기능력, 학습효과, 발표력 향상 8. 필사 *새세한 부분까지 음원듯이 읽는 독서습관 형성 *이해력과 사고력 향상 *자신의 글 전개 능력, 문제, 생각을 습득 *아이의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효과적 9. 반복읽기 *두역을 깨지기 위해서 반복해서 읽다가 죽간을 뒀은 가죽권이 세 번이나 떨어졌다는 공자 *삼리책의 내가 정여창 <소학>을 30년간 읽음 *영조대왕 <소학> 100회 이상 읽음 *고전읽기의 진정한 발견,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반복읽기, 세번은 읽도록 지도. 10. 전문번역가의 번역서를 읽도록 한다.	
필사노트 전시회 	일년동안 필사했던 학생, 학부모, 교사의 노트를 모두 모아서 필사노트 전시
필사 표창 받으신 학부모님들 	필사를 마치신 학부모님들 교장실에서 교장선생님이 직접 표창장 수여



필사를 마치신 학부모님들께 드린 표창장

필사노트 맨 뒷장에 적도록 권면한

〈필사를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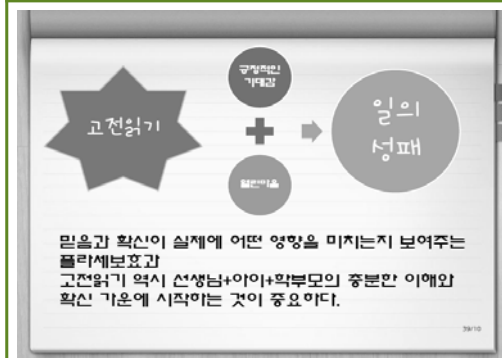


대통령상타기 전국고전읽기백일장대회 참여를 위한
교내대회실시 안내장

제23회 전국고전읽기백일장대회에서 단체상으로 교육부
장관상 수상(가장 많은 수상자가 있는 학교에 단체상
수여)



학생들과 함께 참가한 시상식장에서



1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모여라 고독(古讀)한 중딩들		
	강 사	이 아 영		
	대 상	고전읽기에 관심 있는 중학생		
	활동기간	2015. 5. 17. ~ 7. 19.	총 차시	10
	장 소	대치1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5월 17일 (일요일) 14:00~ 15:00	첫 시간이라 네임텐트에 본인의 학교, 학년, 이름/ 이 수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 이 수업에 기대하는 바/ 자신의 관심 분야를 적게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짐. 다독과 속독에 치우친 잘못된 독서습관, 만화나 판타지 위주, 흥미위주의 독서습관 등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전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고 위인이 된 사람들의 사례 고전읽기를 통해 삼류대학에서 노벨상 최다 배출 대학이 된 학교의 사례 효과적인 고전읽기 방법 소개			총 9명
자체평가	한창 사춘기를 앓고 있는 중학생들. 게다가 자발적으로 신청했다기 보다는 부모님의 권유와 본인의 의지가 합쳐진 학생과, 온전히 부모님의 권유만으로 참석한 학생들의 조합이어서 내심 걱정을 했으나,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느껴졌다. 강의를 마치고, 배운점, 느낀점, 실천할 점을 적는 시간에 고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들을 한 것에 감사했다. 학교도 다 다르고, 학년도 다양하게 섞였는데 이 아이들의 변화가 기대된다.			
기타 의견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수업이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필요하시다면 다음시간부터 간식을 넣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친구의 중요성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차시	2	시간	60분
세부 목표	명심보감의 19.交友(교우)편 ‘친구를 잘 사귀어라’를 통해 친구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선정 자료	명심보감(도서)				
준비물	명심보감 활동지(학생 수만큼), 스크래치 종이, 핫바 스틱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10')	명심보감이 어떤 책인지 소개하고(시대를 초월하여 가정교육의 첫 번째 권장 도서로 손꼽혀 온 책으로 예로부터 수신서의 교과서로 만인을 위한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몇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는지(25장) 살펴보고 각각의 장들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 본다.				
전개 (40')	- 손에 색깔 펜을 쥐고 명심보감 교우 편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나오면 밑줄을 칠 수 있게 한다. - 서로 돌아가면서 한 장씩 소리 내어 읽는다. - 교우 편은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자 어떤 장이 자기 마음에 와 닿아서 밑줄을 그었는지 말하는 시간을 통해, 가장 많은 친구들이 고른 장이 몇 장인지 찾아본다. - 베스트 구절(장)을 고른 친구들부터 차례로 왜 그 장이 마음에 들었는지 나누고 듣는 시간을 가진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돌아가면서 이야기해본다. - 책갈피 모양으로 자른 스크래치 종지와 뾰족하게 깎은 핫바 스틱을 나누어 주고, 자신의 마음을 울린 짱 좋은 구절을 적고 꾸미게 한다.				
정리 (10')	활동지에 나의 마음을 울린 짱 좋은 구절, 이 구절을 고른 이유, 오늘 수업을 통해 배운점, 느낀점, 실천할 점을 적어본다.				

활동지 ①

명심보감 - 19편 交友 친구를 잘 사귀어라

친구를 잘 사귀어라(交友)

-교(交)는 사귄다는 뜻이고 우(友)는 벗, 친구라는 뜻이다.

이편은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친구 사귀기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1. 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난초가 있는 방에 있는 것과 같다.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하지만 그에게 동화된다.
나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다.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 냄새를 맡지 못하지만 그에게 감염된다.
빨간 물감을 담은 것은 붉어지고 검은 물감을 담은 것은 검어진다.
그래서 군자는 반드시 함께 지내는 사람에 대해 신중하다.(공자)
2.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옷이 흠뻑 젖지는 않지만 점점 물기가 배어든다.
무식한 사람과 함께 가면 측간에 앉아있는 것과 같다.
옷이 더러워지지는 않지만 점점 고약한 냄새가 난다.
3. 안평중은 사람과 사귀어 훌륭하구나. 시간이 흘러도 항상 공경하는구나.
4. 얼굴 아는 사람이야 세상에 가득해도 내 마음 알아줄 이 과연 몇일까
5. 술 먹고 밥 먹을 때는 형 아우하던 친구가 천 명이더니, 다급하고 어려울 때는 도와줄 친구 하나 없네.
6.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은 심지 말고, 의리가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
7. 군자의 사귀어 담박하기가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귀어 달콤하기가 단술 같네.
8.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시간이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측간 : 변소
담박하다 : 담백하다(음식이 느끼하지 않고 산뜻하다.)

홍익출판사 <명심보감> 중 19.친구를 잘 사귀어라

활동지 ②

명심보감

☀ 오늘의 교전 : 명심보감(明心寶鑑)

시대를 초월하여 가정교육의 첫 번째 권장도서로 손꼽혀 온 책으로 예로부터 수신서의 교과서로 만인을 위한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격언, 금언, 좌우명 등은 하나같이 소중한 교훈이 되어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를 이끈다.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형으로서, 아우로서, 아내로서, 친구로서, 제자로서, 한 가정 안에서든 사회 안에서든 윗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꾸려가야 할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양한 형식으로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이다.

☀ 나의 마음을 울린 짝 좋은 구절 :

☀ 이 구절을 고른 이유 :

☀ 오늘 수업을 통해 배운점, 느낀점, 실천할 점

배운점 :

느낀점 :

실천할 점 :

2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모여라 고독(古讀)한 중딩들		
	강 사	이 아 영		
	대 상	고전읽기에 관심 있는 중학생		
	활동기간	2015. 5. 17. ~ 7. 19.	총 차시	10
	장 소	대치1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5월 17일 (일요일) 15:00~ 16:00	손에 색깔 펜을 쥐고 명심보감 교우 편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나오면 밑줄을 칠 수 있게 했다. 교우 편은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자 어떤 장이 자기 마음에 와닿아서 밑줄을 그었는지 말하는 시간을 통해 각자의 마음상태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책갈피 모양으로 자른 스크래치 종이와 뾰족하게 깎은 핫바 스틱을 나누어 주고, 자신의 마음을 울린 짱 좋은 구절을 적고 꾸미게 했다.			총 9명
자체평가	학생들이 명심보감 교우편을 읽으면서 고른 구절들은 내 마음 알아 줄 이 과연 몇일까? 어려울 때는 도와줄 친구 하나 없네. 빨간 물감을 담은 것은 붉어지고, 검은 물감을 담은 것을 검어진다.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 냄새를 맡지는 못하지만 그에게 동화된다 등이었다. 명심보감 19편, 친구를 잘 사귀어라를 읽으면서, 막연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던 학생들의 고전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것이 느껴졌다. 책갈피로 만들어 줄테니까 맘에 드는 구절을 적으라고 했을 때는 진지한 모습으로 예쁘게 꾸미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초등학교 같은 느낌이 들기까지 했다.			
기타 의견	• 학생들이 A4 파일을 가지고 왔으면 겹어서 지난 시간 활동지(선생님의 피드백이나 격려글이 적힌)를 끼우라고 나눠주고, 10차시가 끝날 때까지 파일은 도서관에 보관하도록 한다. •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고를 때, 한 장이 너무 길면 그 중 일부를 적어도 된다. • 스크래치 종이에 적은 짱구(짱좋은구절) 책갈피는 겹어서 코팅한 후 책갈피로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나누어 준다.			

2차시 활동 사진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차시	3	시간	60분
세부 목표	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방법인 하브루타를 체험하고 질문하는 힘을 기른다.				
선정 자료	• 하브루타				
준비물	• 하브루타 영상 • 마따호쉐프 영상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10')	• 자리 정돈하고 주위를 집중시킨다. • 지난 차시에 들었던 강의의 내용 중 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질문 • 하브루타의 영상을 보면서, 어떤 진행 원칙이 있는지 찾아본다.				
전개 (40')	• 하브루타 ppt를 보면서 하브루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하브루타 영상을 보면서 8가지 진행 원칙에 대해 알아본다. • 활동지를 통해 하브루타식 질문만드는 방법을 연습해본다. • 8가지 진행원칙에 맞게 하브루타를 체험해본다. • 하브루타의 주제를 정하고(예: 스마트폰은 학업에 좋지않은 영향을 준다), 그 주제에 대해 누가 찬성측, 반대측의 주장을 할 것인지 각각 정하고 10분가량 그 입장이 되어 토론을 하다가, 10분 후에는 찬성과 반대를 바꾸어서 토론을 한다.(처음에 반대측 주장을 했다면 두 번째는 찬성측)				
정리 (10')	• 질문하는 힘을 기르자. 정답을 말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 답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자.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 오늘 수업을 통해 배운점, 느낀점, 실천할 점을 적어본다. • 다음 차시 안내				

활동지 ①

하브루타

♣ 하브루타의 정의

Jewish Text Study in Pairs

유대인들이 두명씩

Havruta : '친구'의 의미

Meaning Making

敎學相長(교학상장) :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것

Havruta : 함께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 과정

♣ 하브루타의 원칙

- 1) 두 명이 한 팀이 되어 진행
주도적으로 토론에 집중
- 2)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바꾸어서 진행
새로운 시각,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
- 3) 다양한 몸짓을 활용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
- 4) 서로 의견을 더하고 격려하여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Winner-Loser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도록 자유분방하게 즐기면서 토론
- 5) 개방된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
시끄러운 소리, 어수선한 상황이 오히려 집중하도록 도움
- 6) 큰 소리, 큰 몸동작으로 자신감 고취
자신의 논리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
- 7) 상호 지식과 경험의 공유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 답변, 논쟁을 통해 서로 공유, 이해
- 8)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도출

활동지 ②

하브루타식 질문만들기

하브루타식 질문 만들기 연습

옛날에는 가난뱅이였던 벼락부자가 있었다.
 람비 할렌은 그에게 말 한 마리와 마부를 주었다.
 어느 날 갑자기 마부가 사라졌다.
 그러자 벼락부자는 사흘 동안 마부처럼 직접 말을 끌고 걸어갔다.

위의 이야기를 읽고 질문을 20개 만들어서 써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활동지 ③

하브루타식 질문을 발전시키는 방법

♣ 하브루타식 질문을 발전시키는 방법

단어의 뜻을 묻는다.
가난뱅이는 무슨 뜻인가?
옛날에는 이란 무슨 뜻인가?

문장의 표현에 대해 묻는다.
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가난뱅이라고 표현했는가?

느낌을 묻는다.
이 문장 전체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드는가?
가난뱅이였던 사람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다면 어떤 느낌일까?

문장을 통해 유추될 수 있는 것들을 묻는다.
벼락부자는 어떤 방법으로 될 수 있는가?
가난뱅이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비교해서 묻는다.
가난뱅이였다가 벼락부자가 됐을 때 가장 좋은 점과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일까?
가난뱅이와 부자의 생활을 비교해 본다면?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다.
당신은 평소 부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력으로 얻지 않은 재물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상대방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묻는다.
당신은 어떻게 부자가 되고 싶은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벼락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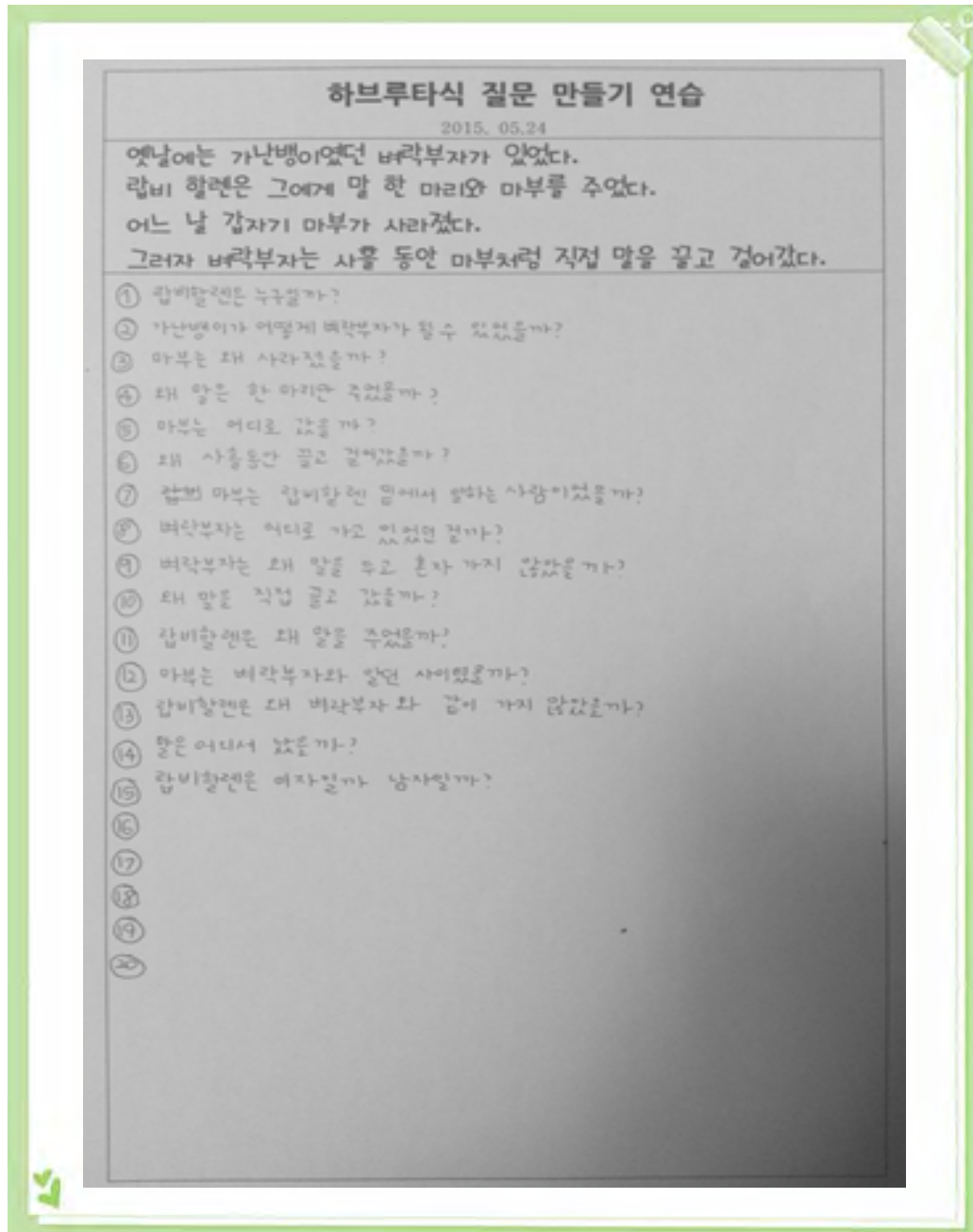
가정하여 묻는다.
만약 당신이 부자가 된다면 어떤 유혹이 가장 먼저 닥쳐올까?

결론적이고 종합적인 것을 묻는다.
빈부와 행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3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모여라 고독(古讀)한 중딩들		
	강 사	이 아 영		
	대 상	고전읽기에 관심 있는 중학생		
	활동기간	2015. 5. 17. ~ 7. 19.	총 차시	10
	장 소	대치1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5월 24일 (일요일) 14:00~ 15:00	하브루타 ppt를 보면서 하브루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하브루타 영상을 보면서 8가지 진행 원칙에 대해 알아보고, 활동지를 통해 하브루타식 질문만드는 방법을 연습해봤다. 진행원칙에 맞게 하브루타를 체험해봤다. 두 명씩 짝을 지어, 찬반토론을 10분정도 하다가 서로 찬반입장을 바꾸어 다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			총 8명
자체평가	정답을 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내가 말한 질문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때문에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학생들과 함께 하브루타식 질문만드는 방법은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다. 나중에 평가지에 4줄짜리 짧은 문장에서 수십개의 질문을 발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고 말하고, 질문 만들기가 별로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하브루타식 질문만드는 법을 통해 활동지에 20가지의 질문을 적게 한후, 참여자 전원이 자신이 만든 질문을 2-3가지 정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한번에 2-3가지 질문을 다 이야기하게 하지 말고, 두바퀴, 혹은 세바퀴 돌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기타 의견	하브루타는 2인 1조로 이루어 실습을 하는데, 두 명 다 말하기를 꺼리는 친구라면 하브루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진행자가 사전에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조편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3차시 활동 사진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효(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차시	4	시간	60분
세부 목표	고전 中 〈몽구〉에 나오는 일화를 읽고, 효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선정 자료	• 몽구 中 〈계모를 감동시킨 효심의 민자건〉이야기				
준비물	• 아버지와 까치 동영상(or 이야기) • 힐링캠프(타블로편) 동영상(2012년, 11월 SBS)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10')	• 자리 정돈하고 주위를 집중시킨다. • 지난 시간의 〈명심보감〉에 이어 〈몽구〉를 소개한다. ‘몽구’란 “어리석은 어린 사람이 스승에게 가르침을 구한다.”라는 뜻으로 어리고 무지하지만 이제부터 세상을 배우고 싶어 하는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의 목마른 요구에 답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다. 『천자문』, 『소학』, 『동몽선습』과 똑같은 아동 교육서이다. 천자에 의해 일반 백성을 위한 훈육서로 채택되어 중국 역사상 가장 널리 가장 오랫동안 읽혀온 책으로, 하나의 장대한 일화집이고 기담집이기도 하다. • 〈몽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효에 대해서 학습할 것을 알린다.				
전개 (40')	• 아버지와 까치 동영상을 시청한다.(2분 40초) • 힐링캠프(타블로 편)을 시청하거나 진행자가 영상을 본후 이야기해 준다.(영상 시청시 5분 소요) • 활동지 ① 〈몽구〉 中 ‘계모를 감동시킨 효심의 민자건’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읽는다.(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구절에 밑줄을 긋게 한다.) • 활동지 ②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과 그 이유를 적게 한다. • 자신이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을 소개하고 그 이유를 말하는 시간을 갖는다.(시간에 따라 발표하는 학생의 명수를 조정) • 활동지 ③에, 효의 사전적인 의미(아버이를 잘 섬기는 일)말고, 자신이 생각하는 효의 정의와 그 이유를 쓰고, 효를 이미지로 표현해 본다. • 자신이 생각하는 효의 정의와 이미지를 발표해본다.(시간에 따라 발표하는 학생의 명수를 조정)				
정리 (10')	• 오늘 수업을 통해 배운점, 느낀점, 실천할 점을 적어보게 한다. • 다음 차시 안내				



몽구 - 계모를 감동시킨 효심의 민자건

〈몽구〉의 옛 주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춘추시대 공자의 제자인 민손은 자를 자건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죽었다.
 그 후에 아버지가 후처를 얻어 두 명의 아이를 낳았다.
 민손은 여전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모는 민손을 대단히 싫어해서
 자기 자식에게는 솜을 넣은 옷을 입히고,
 민손에게는 솜대신에 갈대 이삭을 넣은 옷을 입혔다.
 어느 겨울의 추운 날에 아버지가 민손에게 마차를 끌게 하고 외출했지만
 몸이 얼어서 자신도 모르게 말 가죽끈을 떨어뜨렸다.
 민손의 아버지는 그것을 책망하고 야단쳤다.
 민손은 스스로 그 이유를 변명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이유를 짐작해서 알게 되었고
 결국 후처를 쫓아내려고 했다.
 그러나 민손은 그 말을 듣고 울면서 이렇게 만류했다.
 “어머니가 이 집에 계시면 저 한 사람이 추워질 뿐이지만
 만약 어머니가 이 집을 떠나면
 세 아이가 홑옷을 입고 추위에 괴로워해야만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도 과연 그렇다고 생각해서
 후처를 보내려고 한 생각을 바꾸었다.
 계모도 이 이야기를 듣자 마음을 고쳐먹고 세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여
 마침내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었다.

- 홍익출판사 〈몽구〉 중 민손의단(閔損衣單) -

활동지 ②

몽구

☀ **오늘의 고전 : 몽구 中 <계모를 감동시킨 효심의 민자권>**

‘몽구’란 “어리석은 어린 사람이 스승에게 가르침을 구한다.”라는 뜻으로 어리고 무지하지만 이제부터 세상을 배우고 싶어 하는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의 목마른 요구에 답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다. 『천자문』, 『소학』, 『동몽선습』과 똑같은 아동 교육서이다. 천자에 의해 일반 백성을 위한 훈육서로 채택되어 중국 역사상 가장 널리 가장 오랫동안 읽혀온 책으로, 하나의 장대한 일화집이고 기담집이기도 하다.

☀ **나의 마음을 울린 짝 좋은 구절 :**

☀ **이 구절을 고른 이유 :**

☀ **오늘 수업을 통해 배운점, 느낀점, 실천할 점**

배운점 :

느낀점 :

실천할 점 :

활동지 ③

몽구

모여라 고독(古讀)한 중딩들

孝

孝의 정의 내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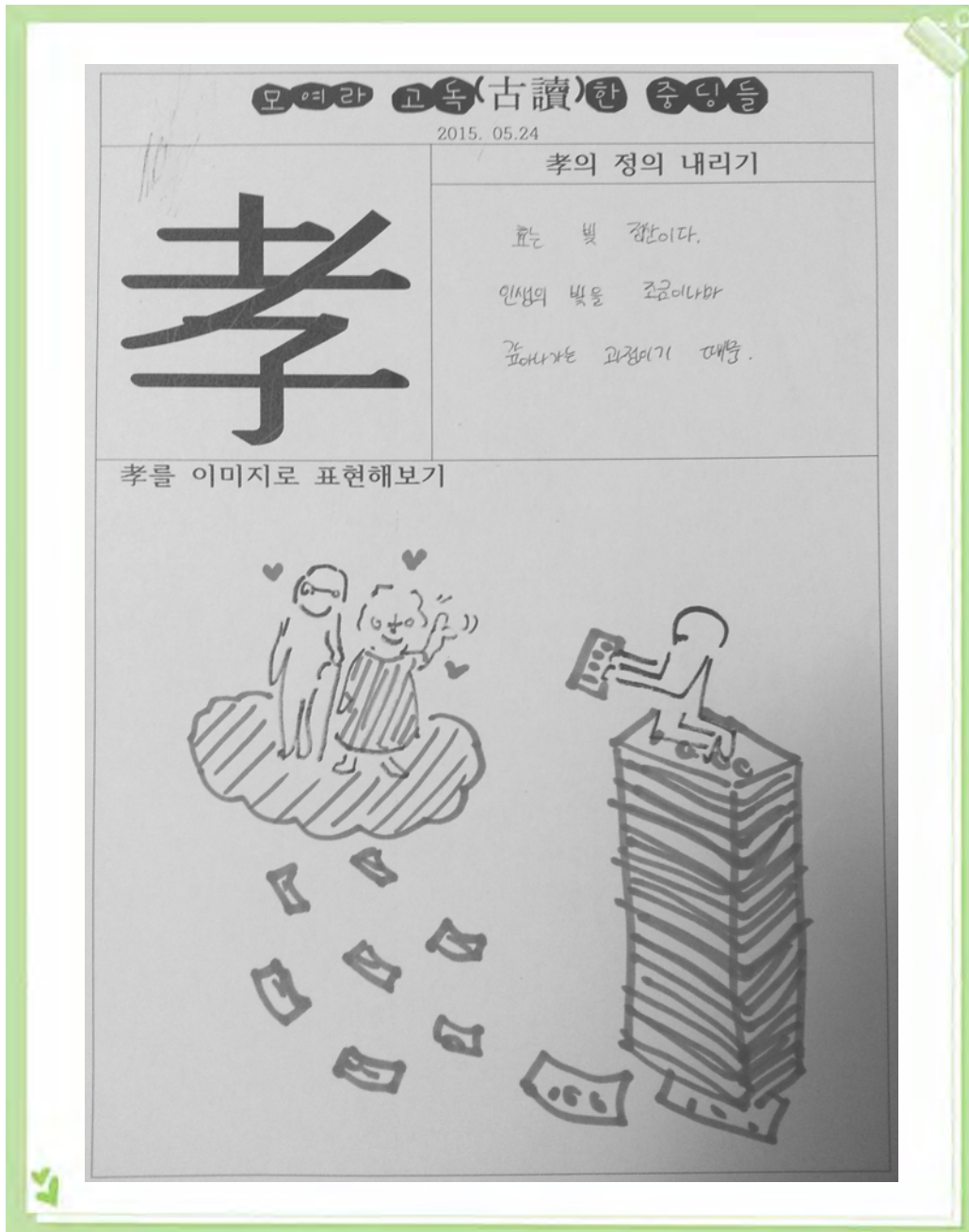
孝를 이미지로 표현해보기

4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모여라 고독(古讀)한 중딩들		
	강 사	이 아 영		
	대 상	고전읽기에 관심 있는 중학생		
	활 동 기 간	2015. 5. 17. ~ 7. 19.	총 차시	10
	장 소	대치1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5월 24일 (일요일) 15:00~ 16:00	아버지와 까치 동영상을 시청한다.(2분 40초) 힐링캠프(타블로 편)에서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면서 효에 대한 영상과 이야기로 수업을 시작했다. 〈몽구〉中 ‘계모를 감동시킨 효심의 민자건’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읽었다.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구절에 밑줄을 긋게 한다.) 자신이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을 소개하고 그 이유를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효의 사전적인 의미(아버이를 잘 섬기는 일)말고, 자신이 생각하는 효의 정의와 그 이유를 쓰고, 효를 이미지로 표현해 본 후, 자신이 생각하는 효의 정의와 이미지를 발표했다.			총 9명
자체평가	효에 대해서 행하지는 않으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효 관련 영상을 먼저 시청한 것이 효과가 좋았다. 또한 효에 대해 말로 하기 쑥스러워하는 학생들에게 효를 먼저 이미지로 표현해 보게 하고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가 어떤 것인지 나눌 수 있었다. 효의 사전적 의미가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효의 정의를 내릴 때 막연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먼저 예시로 정의와 이미지를 보여준 것이 좋았다. 예)효는 눈맞춤이다.(왜냐하면 내 생각에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눈 높이에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효이기 때문이다.)			
기타 의견	진행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을 때는 힐링캠프(타블로 편)은 선생님이 이야기로 요약해서 들려준다. 어머님들의 요청으로 다음 차시에는 학생들 수업을 마치고,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학부모 강의를 진행하기로 함.			

4차시

활동 사진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학(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차시	5	시간	60분
세부 목표	논어 중 1편 학이 편과, 4편 리인 편을 읽고 내가 생각하는 學(학)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선정 자료	논어(도서)				
준비물	논어 활동지(학생 수만큼), 이미지카드, 포스트잇, 매직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10')	논어가 어떤 책인지 소개하고(공자와 그 제자들이 세상을 사는 이치나 교육, 문화, 정치 등에 관해 논의한 이야기들을 모은 책) 몇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는지 (20장) 살펴보고 각각의 장들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 본다				
전개 (40')	- 손에 색깔 펜을 쥐고 논어 중 1편 학이 편과, 4편 리인 편을 읽다가 '學'이나 배움이라는 단어가 아니어도 내가 생각할 때 '學'을 표현하는 구절이 나오면 나오면 밑줄을 칠 수 있게 한다. - 서로 돌아가면서 한 장씩 소리 내어 읽는다. - 내가 생각할 때 '學'이라고 생각되는 구절이 여러개일 경우 모두다 밑줄을 긋게 한다. - 내가 고른 구절을 발표하고, 나는 왜 이 구절을 '學'이라고 생각했는지 이야기 나눈다. - 이미지 카드를 책상위에 여러장 늘어놓고, '學'의 이미지가 떠올려지는 카드를 하나 고르게 한다. 포스트잇에 <학은 ○○이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다.>라고 적게 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정리 (10')	활동지에 나의 마음을 울린 짱 좋은 구절, 이 구절을 고른 이유, 오늘 수업을 통해 배운점, 느낀점, 실천할 점을 적어본다.				



논어 - 1편 학이

1.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않은가?”
2. 유자가 말했다. “그 사람됨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에게 공경스러우면서 윗사람 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윗사람 해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질서를 어지럽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는 것이니, 근본이 확립되면 따라야 할 올바른 도리가 생겨난다. 효도와 공경이라는 것은 바로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니라!”
3.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곱게 꾸미는 사람들 중에는 인한 이가 드물다.”
4. 증자는 말했다. “나는 날마다 다음 세 가지 점에 대해 나 자신을 반성한다. 남을 위하여 일을 꾀하면서 진심을 다하지 못한 점은 없는가? 벗과 사귀면서 신의를 지키지 못한 일은 없는가? 배운 것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은 없는가?”
5.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씩씩이를 절약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하며, 백성들을 동원할 경우에는 때를 가려서 해야 한다.”
6.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들은 집에 들어가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가서는 어른들을 공경하며,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신의를 지키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진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 이렇게 행하고서 남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글을 배우는 것이다.”
7. 자하가 말하였다. “어진 이를 어진 이로 대하기를 마치 여색을 좋아하듯이 하고, 부모를 섬길 때는 자신의 힘을 다할 수 있으며, 임금을 섬길 때는 자신의 몸을 다 바칠 수 있고, 벗과 사귄 때는 언행에 믿음이 있다면, 비록 배운 게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운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8.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신중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으며, 배워도 견고하지 않게 된다. 충실과 신의를 중시하고,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사귀지 말며,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9. 증자가 말하였다. “장례를 신중하게 치르고 먼 조상의 제사에도 정성을 다하면, 백성들의 인정이 돈독해질 것이다.”

10. 자공이 자공에게 물었다. “선생님 (공자)께서는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에 가시면 반드시 그 나라의 정치에 대해 듣게 되는데, 이는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자발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까?”
자공이 말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온화*선량*공손*검소*겸양의 인품으로 인하여 자연히 듣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생님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정치 권력에 가까이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11.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경우에는 자식의 속마음을 살펴보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자식의 행동을 살펴봐야한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버지께서 하시던 방법을 고치지 않아야 효도한다고 말할 수 있다.”
12. 유자가 말하였다. “예의 기능은 화합이 귀중한 것이다. 옛 왕들의 도는 이것을 아름답다고 여겨서, 작고 큰일들에서 모두가 이러한 이치를 따랐다 그렇게 해도 세상에서 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합을 이루는 것이 좋은 줄 알고 화합을 이루되 예로써 절제하지 않는다면 또한 세상에서 통하지 못하는 것이다.”
13. 유자가 말하였다. “약속한 것이 도의에 가깝다면 그 말을 실천할 수 있고, 공손함이 예에 가깝다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 의탁하여도 그 친한 관계를 잃지 않을 수 있다면 또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14.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먹는 것에 대해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고, 거처하는 데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한 일하는 데 민첩하고 말하는 데는 신중하며, 도의를 아는 사람에게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다. 이런 사람이라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할 만 하다.”
15. 자공이 말하였다. “가난하면서도 남에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즐겁게 살고 부유하면서도 예의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
자공이 말하였다. “시경에서 말하기를 ‘칼로 자르는 듯, 줄로 가는 듯, 정으로 쏘는 듯, 솟돌로 광을 내는 듯하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비로소 더불어 시를 이야기할 만하구나! 지나간 일을 말해 주니 알려주지 않은 것까지 아는구나.”
16.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 출처 : 홍익출판사 슬기바다총서 시리즈1 논어 중 1편 학이 -

활동지 ②

논어 - 4편 리인

1.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마을의 풍속이 인하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인한 마을을 잘 골라서 거처하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롭다 하겠는가?”
2.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하지 못한 사람은 오랜 동안 곤궁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오래도록 안락하게 지내지도 못한다. 인한 사람은 인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게 여긴다.”
3.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인한 사람만이 남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다.”
4.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인에 뜻을 두면 악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5.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유함과 귀함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누려서는 안 된다. 가난함과 천함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부당하게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억지로 벗어나려 해서는 안 된다. 군자가 인을 버리고 어찌 군자로서의 명성을 이루겠는가? 군자는 밥 먹는 순간에도 인을 어기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급한 때라도 반드시 인에 근거해야 하고, 위태로운 순간일지라도 반드시 인에 근거해야 한다.”
6.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직 인함을 좋아하는 사람과 인하지 않음을 미워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인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인하지 않음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을 실천함에 있어서 인하지 않은 사람이 그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는다. 하루라도 인을 위해 그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그 능력이모자라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아마도 있긴 하겠지만, 나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7.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허물의 각기 그가 어울리는 무리를 따른다. (그러므로) 그 허물을 보면 곧 그가 어느 정도 인한지를 알게 된다.”
8.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침에 도를 들어 알게 된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9.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비로서 도에 뜻을 두고도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더불어 논의할 상대가 못된다.”
10.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천하에서,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것도 없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없으며, 오직 의로움만을 따를 뿐이다.”
11.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지만 소인은 편히 머물 곳을 생각하고, 군자는 법을 생각하지만 소인은 혜택 받기를 생각한다.”

12.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면 원한을 사는 일이 많아진다.”
13.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의와 겸양으로 일을 대한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예의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면 예는 있어 무엇 하겠는가?”
14.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걱정해야 하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 만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5.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삼아! 나의 도는 하나로 관통된다.” 증자는 “예” 하고 주저 없이 대답하였다. 공자께서 나가시자 문인들이 물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증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의 도는 충과 서일 뿐입니다.”
16.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이 밝다.”
17.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진 이를 보면 그와 같아질 것을 생각하고, 어질지 못한 이를 보면 자신 또한 그렇지 않은지를 반성한다.”
18.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를 섬길 때는 잘못하시는 점이 있더라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않을 뜻을 보이더라도, 더욱 공경하여 부모의 뜻을 어겨서는 안 되며, 아무리 힘들더라도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
19.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가 생존해 계실 때는 먼 곳으로 가서는 안 되며, 떠나갈 때는 반드시 갈 곳을 정해 두어야 한다.”
20.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3년 동안 아버지께서 하시던 방법을 고치지 않아야 효도한다고 말할 수 있다.”
21.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님의 연세는 모를 수가 없다. 한편으로는 장수하시므로 기쁘고, 한편으로는 노쇠함으로 인해 두렵기 때문이다.”
22.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 이는 행동이 따르지 못할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23.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절제 있는 생활을 하면서 잘못되는 경우는 드물다.”
24.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말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듯이 하려하고, 행동에 대해서는 민첩하려고 한다.”
25.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26. 자유가 말하였다. “임금을 섬김에 번거롭게 자주 간언을 하면 곧 치욕을 당하게 되고, 친구에게 번거롭게 자주 충고를 하면 곧 소원해지게 된다.”

- 출처 : 홍익출판사 슬기바다총서 시리즈1 논어 중 4편 리인 -

활동지 ③

논어

☀ **오늘의 고전 : 논어 中 1편 학이, 4편 리인**

『논어(論語)』는 공자와 그 제자들이 세상사는 이치나 교육·문화·정치 등에 관해 논의한 이야기들을 모은 책이다. 그 안에는, 공자의 훈잠타를 기록해 놓은 것과 제자의 물음에 공자가 대답한 것, 제자들끼리 나눈 이야기, 당대의 정치가들이나 평범한 마을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논어』가 되었다고 한다. 공자와 그 제자들이 토론한 이야기라는 의미이다.

☀ **1편 학이 편과 4편 리인 편에서 學(학)에 관련되었다고 생각되는 구절을 모두 찾아써 보세요.**

☀ **1편 학이 편과 4편 리인 편을 읽고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적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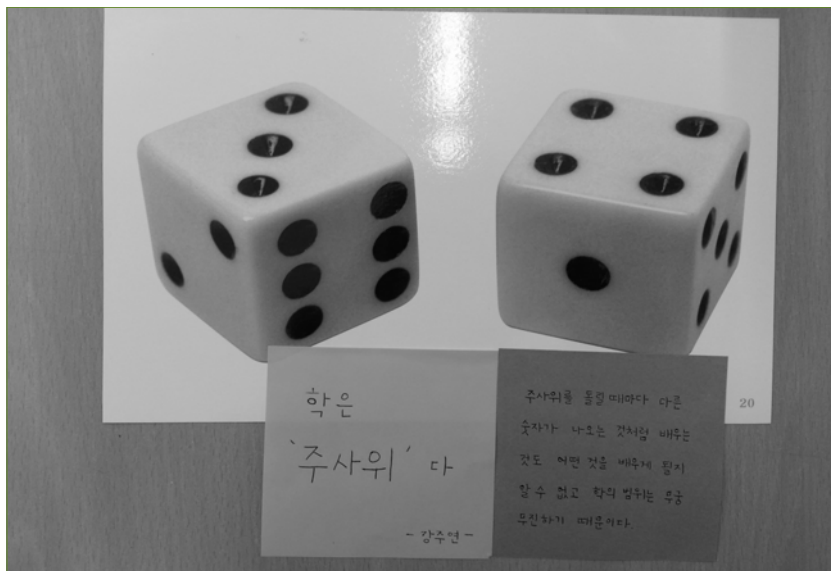
☀ **이 구절을 고른 이유를 적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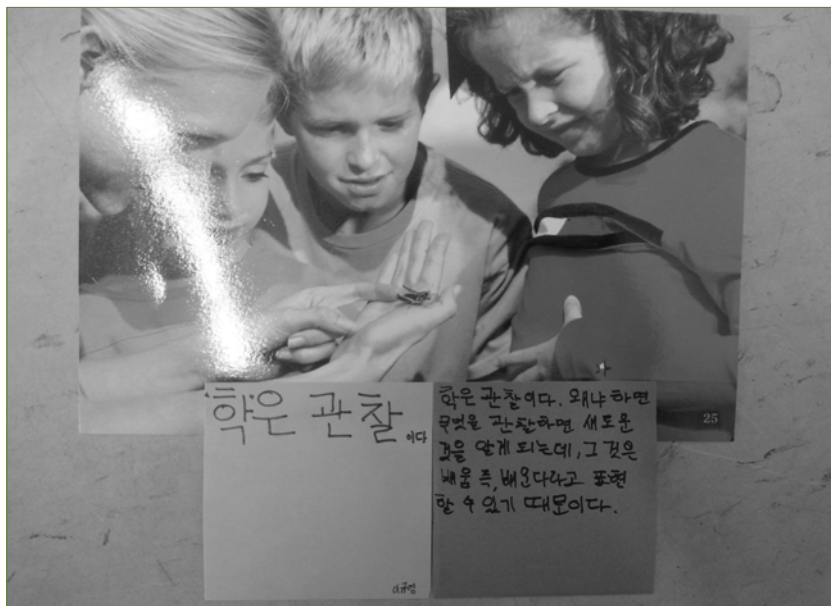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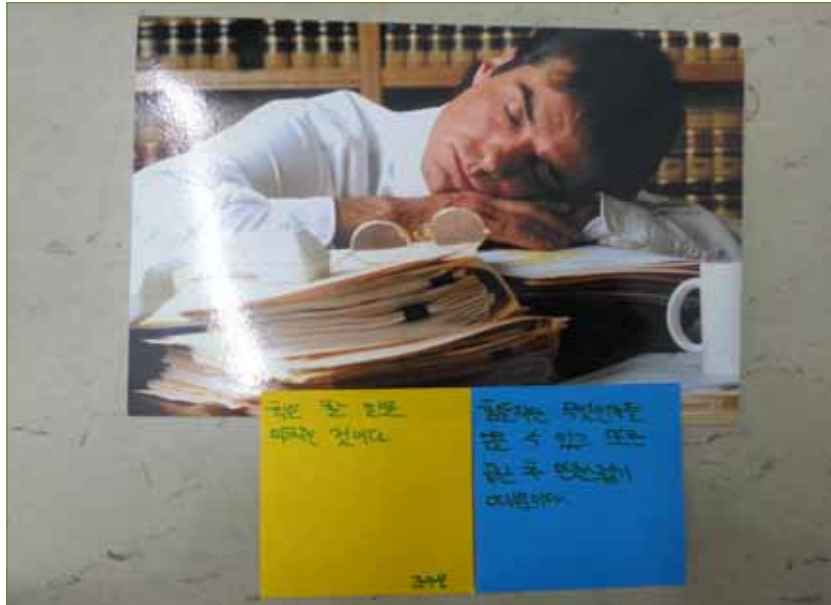
5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모여라 고독(古讀)한 중딩들		
	강 사	이 아 영		
	대 상	고전읽기에 관심 있는 중학생		
	활 동 기 간	2015. 5. 17. ~ 7. 19.	총 차시	10
	장 소	대치1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5월 31일 (일요일) 14:00~ 15:00	내가 생각할 때 ‘學’이라고 생각되는 구절이 여러 개일 경우 모두 다 밑줄을 긋게 한다. 내가 고른 구절을 발표하고, 나는 왜 이 구절을 ‘學’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미지 카드를 책상 위에 여러 장 늘어놓고, ‘學’의 이미지가 떠올러지는 카드를 하나 고르게 한다. 포스트잇에 <‘學’은 ○○이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다.>라고 적게 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총 9명
자체평가	이미지 카드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學’을 표현해 내는 아이들을 볼 때, 그 생각의 다양함과 창의성에 놀랐다. 이 날은 특히 아이들 수업마치고, 원래는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학부모 특강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가?’를 하기로 했던 날인데, 어머님들에게 자녀들이 이미지 카드를 통해 ‘學’을 표현하고, 왜 그 이미지를 ‘學’으로 생각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은 것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셨다.			
기타 의견	책이 없이 논어 활동지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임의로 1편 학이편과 4편 리인편 중에서 ‘學’을 고르라고 했지만, 동일한 책이 있을 때는 아이들에게 각자 다른 편을 한편씩 읽게 하고 그 중 내가 생각하는 ‘學’을 고르게 해도 좋다.			

5차시

활동 사진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덕(德)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차시	6	시간	60분
세부 목표	고전 中 〈몽구〉에 나오는 일화를 읽고, 덕(德)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선정 자료	• 몽구(도서)				
준비물	• 몽구 활동지(학생 수만큼)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10')	• 자리 정돈하고 주위를 집중시킨다. •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몽구〉를 기억하고 있는지 묻고, 기억을 못하면 ‘계모를 감동시킨 효심의 민자건’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며, 오늘 배우게 될 ‘초장절영’ 역시 〈몽구〉에 나오는 이야기임을 알려준다. ‘몽구’란 “어리석은 어린 사람이 스승에게 가르침을 구한다”라는 뜻으로 어리고 무지하지만 이제부터 세상을 배우고 싶어 하는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의 목마른 요구에 답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다. 『천자문』, 『소학』, 『동몽선습』과 똑같은 아동 교육서이다. - 천자에 의해 일반 백성을 위한 훈육서로 채택되어 중국 역사상 가장 널리 가장 오랫동안 읽혀온 책으로, 하나의 장대한 일화집이고 기담집이기도 하다. • 〈몽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덕에 대해서 학습할 것을 알린다.				
전개 (40')	• 초장절영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 밑줄을 긋게 한다. • 자신이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을 소개하고 그 이유를 말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간에 따라 발표하는 학생의 명수를 조정) • 초나라 장수 장왕이 갇힌을 풀어 신하의 잘못을 감싸준 것처럼,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받아본 경험,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해 준 경험 등을 서로 나누어 본다.				
정리 (10')	• 오늘 수업을 통해 배운점, 느낀점, 실천할 점을 적어보게 한다. • 다음 차시 안내				

활동지 ①

몽구 - 갓끈을 끊어 신하의 잘못을 감춘 장왕

(楚莊絕纓 초장절영 : 초장/초나라 장왕, 절영 : 끊을절/갓끈영)

여러 고대인들의 일화를 싣고 있는 『설원』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 이야기이다.
 어느 날, 전투에서 승리한 기쁨을 함께 하고자 궁궐에서 큰 연회가 열렸다.
 초나라의 장왕은 여러 신하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날이 저물고 연회가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등불이 꺼졌다. 그러자 왕이 총애하는 미인의 옷깃을 끌어당기는 자가 있었다.
 미인은 그 남자의 갓끈을 잡아 뜯고서 왕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급히 불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갓끈이 뜯겨진 자를 찾아 주십시오.”
 그러자 왕은 이렇게 말했다.
 “원래 군신 간에는 술이 석잔을 넘지 않게 되어 있소. 그러나 오늘 같이 기쁜 날 내가 먼저 그 약속을 깨고 술을 권했고, 모두 거나히 취하게 되었소. 술을 마시면 당연히 자제력을 잃게 되고 여자가 예쁘게 보이는 법이오. 더구나 당신이잖소. 나같아도 당신이라면 그리했겠소.”
 그러고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오늘 과인과 술을 마시고 있으면서 갓끈이 끊어지지 않는 자는 즐겁게 놀지 않은 것이오.”
 그러자 자리에 있던 신하 백여 명 모두가 자신의 갓끈을 뜯어내었다. 그런 뒤에 불을 밝히고 즐겁게 논 다음에 연회를 끝냈다.
 나중에 진나라와 초나라가 전쟁할 때 한 신하가 언제나 항상 선두에 서서 달려나갔다. 그는 다섯 번 싸움에 다섯 번 모두 적장의 머리를 베고 적군을 무찔러 마침내 진나라 군대를 물리쳤다.
 장왕이 그를 치하하자, “제가 바로 몇해전 연회에서 왕의 애첩을 희롱한 자입니다. 그때 죽을 것을 왕께서 살려주셨으니, 왕에게 목숨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 홍익출판사 <몽구> 중 초장절영 (楚莊絕纓) -

거나히 : 술 따위에 어지간히 취한 상태로

과인 : 임금이 자신을 낮추어 부르던 일인칭 대명사

연회 : 축하, 위로, 환영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모여서 베푸는 잔치

치하 : 남이 한 일에 대하여 고마움이나, 칭찬의 뜻을 표시함

활동지 ②

몽구

모여라 고독(古讀)한 중딩들

☀ **오늘의 고전 : 몽구 中 <강판을 끊어 신하의 작물을 감춘 장왕>**

‘몽구’란 “어리석은 어린 사람이 스승에게 가르침을 구한다”라는 뜻으로 어리고 무지하지만 이제부터 세상을 배우고 싶어 하는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의 목마른 요구에 답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다. 『천자문』, 『소학』, 『동몽선습』과 똑같은 아동 교육서이다. 천자에 의해 일반 백성을 위한 훈육서로 채택되어 중국 역사상 가장 널리 가장 오랫동안 읽혀온 책으로, 하나의 장대한 일화집이고 기담집이기도 하다.

☀ **나의 마음을 울린 짝 좋은 구절 :**

☀ **이 구절을 고른 이유 :**

☀ **오늘 수업을 통해 배운점, 느낀점, 실천할 점**

배운점 :

느낀점 :

실천할 점 :

6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모여라 고독(古讀)한 중딩들		
	강 사	이 아 영		
	대 상	고전읽기에 관심 있는 중학생		
	활동기간	2015. 5. 17. ~ 7. 19.	총 차시	10
	장 소	대치1작은도서관		
일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5월 31일 (일요일) 15:00~ 16:00	초장절영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 밑줄을 긋게 한다. 자신이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을 소개하고 그 이유를 말하는 시간을 갖는다. 초나라 장수 장왕이 갇힌을 풀어 신하의 잘못을 감싸준 것처럼,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받아본 경험,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해 준 경험 등을 서로 나누어 본다.			총 9명
자체평가	아직은 어린 학생들이라 용서에 관련해서 큰 사건이 있는 친구는 거의 없었고 사소한 사건들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지만, 실수를 한 신하의 잘못을 덮어주었을 뿐 아니라, 애첩의 미모를 칭찬하여 기분 나쁘지 않은 대답을 한 장왕의 지혜로움에 감탄을 하면서 용서를 통해 적을 온전한 내편으로 만든 장왕의 덕과 지혜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기타 의견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성품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차시	7	시간	60분
세부 목표	고전 中 명심보감의 8편 '성품을 경계하라'를 통해 성품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선정 자료	• 명심보감(도서) • 명심보감 활동지(학생 수만큼) • 씨앗카드(63개의 성품에 관련된 덕목이 써있음)				
준비물	• 몽구 활동지(학생 수만큼) • 씨앗카드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10')	• 자리 정돈하고 주위를 집중시킨다. • 명심보감이 어떤 책인지 기억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2차시 수업에서 했던 '친구를 잘 사귀어라'를 상기시켜 주며, 같은 책에 수록된 글임을 알려준다.				
전개 (40')	• 학생들에게 씨앗카드를 나누어 준다. • 네임펜을 손에 들고 씨앗카드에 있는 63개의 덕목 중 나에게 해당되는 성품을 모두 동그라미 쳐보게 한다. • 나에게 해당되는 성품 중 가장 나에게 어울리는 두 가지의 성품을 고른다. • 그 성품을 써서 자신을 표현하는 글을 뒷면에 쓴다. 예) 고른 성품이 성실과 감사였다면 : 나는 성실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다. • 손에 색깔 펜을 쥐고 명심보감 '성품을 경계하라' 편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나오면 밑줄을 칠 수 있게 한다. • 서로 돌아가면서 한 장씩 소리 내어 읽는다.				
정리 (10')	• 활동지에 나의 마음을 올린 짱 좋은 구절, 이 구절을 고른 이유, 오늘 수업을 통해 배운점, 느낀점, 실천할 점을 적어본다. • 다음 차시 안내 • 씨앗카드에서 고른 자신의 덕목 두 가지를 이름표처럼 만들어 활동지를 모으는 A4 파일에 붙여 주어도 좋다. (예 : 성실하고 감사할 줄 아는 ○ ○ ○)				

활동지 ①

명심보감(明心寶鑑) - 8편 성품을 경계하라

明: 밝을 명, 心: 마음 심, 寶: 보배로울 보, 鑑: 거울 감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

1.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다.
물이 한번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성품이 한번 방종해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물을 막으려면 반드시 독을 쌓아 막듯이
성품을 바로 잡으려면 반드시 예법으로 해야 한다.
2. 한순간의 분노를 꼭 눌러 참으면 백 날 동안의 근심을 면하리라.
3. 참고 또 참아라.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참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사소한 일이 큰일 된다.
4. 어리석은 사람이 크게 화내니
세상 이치 깨닫지 못해서라네
마음에 화의 불길 돋우지 마오
귓가를 스쳐가는 바람결마냥
집집마다 장점 단점 모두 있고요
곳곳마다 덥고 찬 데 모두 같다네
옳고 그름 본래부터 실상이 없어
마침내 모두가 부질없다네
5. 자장이 떠나고자 하였다. 공자께 하직 인사를 올리며 삶의 지침이 될 한마디 교훈을 청하였다.
공자께서 “모든 행실의 근본으로는 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자장이 “참는다는 건 무엇입니까?”라고 여쭙었다.
공자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을 것이다. 제후가 참으면 나라가 커질 것이다.
관리가 참으면 그 지위가 높아질 것이다. 형제가 서로 참으면 그 집안이 부귀
해질 것이다. 부부가 서로 참으면 일생을 해로하게 될 것이다. 친구가 서로 참
으면 명예가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참으면 화가 이르지 않을 것이다.”

자장이 이번에는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여쭙었다.

공자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황폐해질 것이다. 제후가 참지 않으면 그 몸마저 잃게 될 것이다. 관리가 참지 않으면 법 앞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형제가 서로 참지 않으면 갈라져 따로 살게 될 것이다. 부부가 서로 참지 않으면 자식들을 부모없는 고아가 되게 할 것이다. 친구가 서로 참지 않으면 서로간에 우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신이 참지 않으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장이 감탄하며 말하였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신가! 참는다는 건 참으로 어렵구나! 참으로 어렵구나!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로구나.”

6. 자기를 굽힐 줄 아는 사람은 중요한 지위에 오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아기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나게 될 것이다.
7.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꾸짖을 경우에 착한 사람은 조금도 대꾸하지 않는다.
대꾸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맑고 한가롭지만
꾸짖는 사람의 입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이것은 마치 하늘 향해 침을 뱉으며 도로 자기 몸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8. 어떤 사람 나에게 욕을 해대도
귀먹은 채하고 대꾸 안 하네
마치 불이 허공에서 혼자 타다가
애써 끄지 않아도 사그라지듯
내 마음은 텅 빈 허공 같은데
너는 어찌 혀과 입술 나불거리나
9. 모든 일에 따뜻한 인정을 남겨 두면
나중에 서로 좋은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된다.

— 홍익출판사 〈명심보감〉 중 8편 성품을 경계하라 —

활동지 ②

명심보감

모여라 고독(古讀)한 중딩들

☀ **오늘의 고전 : 명심보감(明心寶鑑) 中 <8. 성품을 경계하라>**

시대를 초월하여 가정교육의 첫 번째 권장도서로 손꼽혀 온 책으로 예로부터 수신서의 교과서로 만인을 위한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격언, 금언, 좌우명 등은 하나같이 소중한 교훈이 되어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를 이끈다.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형으로서, 아우로서, 아내로서, 친구로서, 제자로서, 한 가정 안에서든 사회 안에서든 윗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꾸려가야 할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양한 형식으로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이다.

☀ **나의 마음을 울린 짝 좋은 구절 :**

☀ **이 구절을 고른 이유 :**

☀ **오늘 수업을 통해 배운점, 느낀점, 실천할 점**

배운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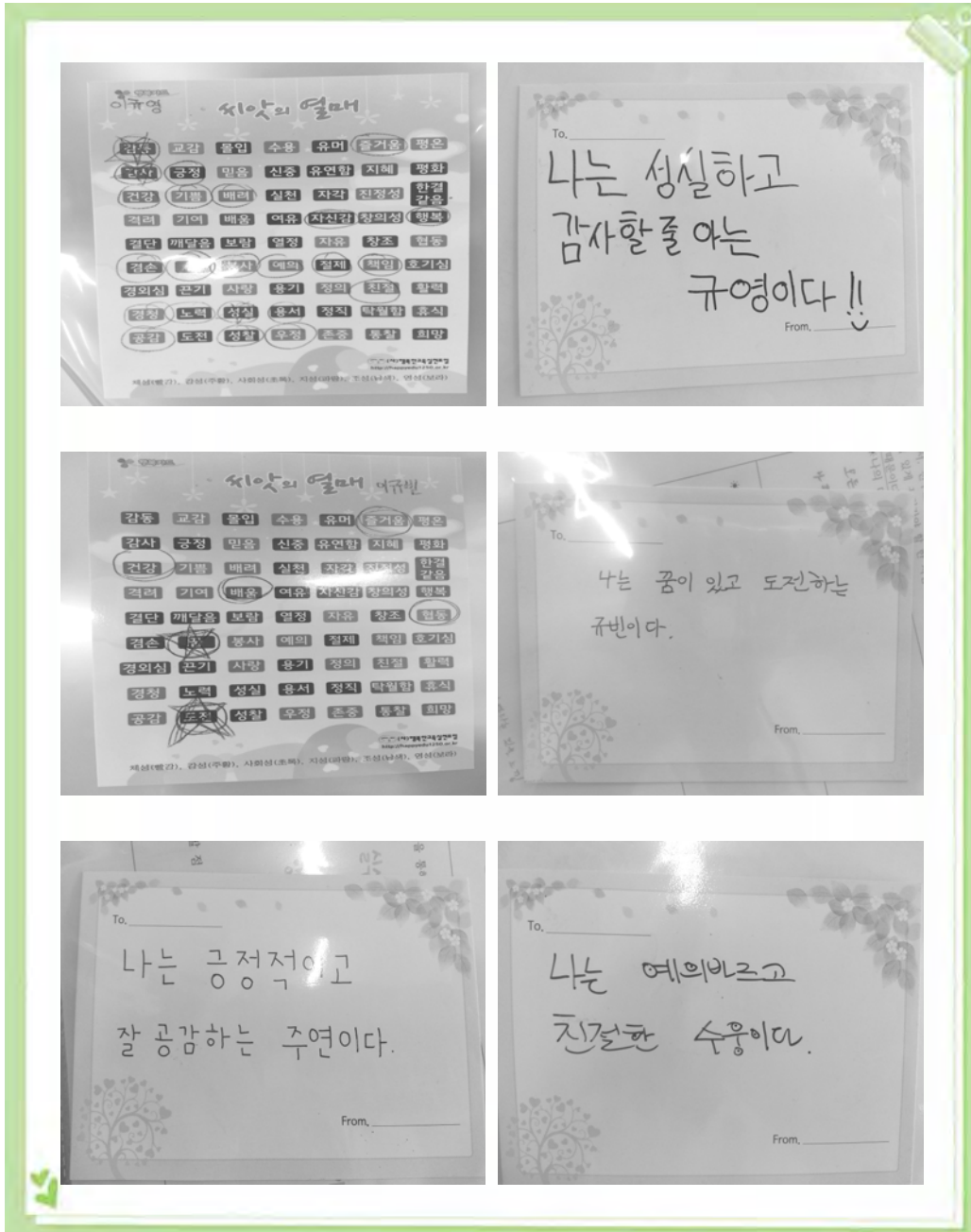
느낀점 :

실천할 점 :

7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모여라 고독(古讀)한 중딩들		
	강 사	이 아 영		
	대 상	고전읽기에 관심 있는 중학생		
	활동기간	2015. 5. 17. ~ 7. 19.	총 차시	10
	장 소	대치1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7월 12일 (일요일) 14:00~ 15:00	학생들에게 씨앗카드를 나누어 주고, 씨앗카드에 있는 63개의 덕목 중 나에게 해당되는 성품을 모두 동그라미 쳐보게 한다. 동그라미 친 덕목들 중 특별히 나에게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덕목을 찾아 별표시를 한다. 별 표시한 성품을 써서 자신을 표현하는 글을 뒷면에 쓴다. 예) 고른 성품이 성실과 감사였다면 : 나는 성실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다. 손에 색깔 펜을 쥐고 명심보감 ‘성품을 경계하라’ 편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나오면 밑줄을 칠 수 있게 한다. 서로 돌아가면서 한 장씩 소리 내어 읽는다.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소개하고 그 이유를 함께 나눈다.			총 7명
자체평가	아직은 어린 학생들이라 용서에 관련해서 큰 사건이 있는 친구는 거의 없었고 사소한 사건들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지만, 실수를 한 신하의 잘못을 덮어주었을 뿐 아니라, 애첩의 미모를 칭찬하여 기분 나쁘지 않은 대답을 한 장왕의 지혜로움에 감탄을 하면서 용서를 통해 적을 온전한 내편으로 만든 장왕의 덕과 지혜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기타 의견	씨앗카드에서 고른 자신의 덕목 두 가지를 이름표처럼 만들어 활동지를 모으는 A4 파일에 붙여 주어도 좋다. (예 : 성실하고 감사할 줄 아는 ○ ○ ○)			

7차시 활동 사진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지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차시	8	시간	60분
세부 목표	고전 中 안자춘추-제나라 경공때 명재상 안자의 이야기를 통해 지혜의 중요함에 대해 생각해본다.				
선정 자료	안자춘추(도서)				
준비물	안자춘추 활동지(학생 수만큼)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10')	- 자리 정돈하고 주위를 집중시킨다. - 안자춘추가 어떤 책인지 소개하고(중국 춘추시대 말기 제(齊)나라의 명재상 안영(?~BC 500)의 언행을 후대인(後代人)이 기록했다는 책. 제갈공명이 극찬한 춘추시대 명재상 안자의 행실과 처세, 지략과 덕망이 담긴 짧은 일화를 모은 고전서. 당대 공자가 가르치면서 지칠줄 모르던 성인였다면 몸소 실천해 교화되도록 하는 현자였던 자가 청렴결백하게 자신을 낮추고 백성을 돌봤던 일화 수록) 안자에 얹힌 두 개의 일화를 이번 시간에 함께 볼 것이라고 말해준다.				
전개 (40')	- 손에 색깔 펜을 쥐고 안자춘추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나오면 밑줄을 그을 수 있게 한다. - 서로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게 선생님이 적당한 길이에서 끊어 읽기를 시킨다. - 다 읽은 후,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각각 요약해서 다시 이야기 해볼 수 있는 사람을 자원 받아 시킨다. -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을 고르고, 왜 그 구절을 골랐는지 그 이유도 함께 나누어 본다. - 지혜로 위기를 모면한 경험이나, 지혜 없음으로 위기를 맞이한 경험을 함께 나누어본다.				
정리 (10')	- 활동지에 나의 마음을 울린 짙은 구절, 이 구절을 고른 이유, 오늘 수업을 통해 배운점, 느낀점, 실천할 점을 적어본다. - 다음 차시 안내				

활동지 ①

안자춘추 - 제나라 경공때 명재상 안자의 첫 번째 이야기

<안자춘추> : 중국 춘추시대 말기 제(齊)나라의 명재상 안영(?~BC 500)의 언행을 후대인(後代人)이 기록했다는 책. 제갈공명이 극찬한 춘추시대 명재상 안자의 행실과 처세, 지략과 덕망이 담긴 짧은 일화들 모은 고전서. 당대 공자가 가르치면서 지식을 모르던 성인이었다면 몸소 실천해 교화되도록 하는 현자였던 자가 천천히밖에 자신을 낮추고 백성을 돌봤던 일화 수록

제나라 경공때 안자는 재상으로 이름이 높았다.

안자가 초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의 이야기다.

초나라에서 안자를 골려주려고 큰 문 옆에 조그만 문을 만들어 놓고 안자에게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안자가 말했다.

“개의 나라에 가면 개구멍으로 드나드는 것이 예의일 것이나, 나는 개의 나라에 온 것이 아니고 버젓한 사람의 나라 초나라에 온 것이니 어찌 개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초나라 사람은 허둥지둥 큰 문을 열고 그리고 안자를 안내했다. 그리하여 초나라 임금을 만났다.

“제나라에는 인물이 없는 모양이군.”

“제나라 수도는 사방이 3백여 정보나 되며, 인종이 많아 옷소매를 벌리면 채알을 친 것 같고, 땀을 뿌리면 비가 오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그러한 곳에 인물이 없겠습니까?”

“그리하면 어찌하여 그대와 같은 사람을 사신으로 보냈단 말인가?”

“제나라에서 외국에 사신을 보낼 때 슬기로운 임금이 있는 나라에는 슬기로운 사람을 보내고, 못난 임금이 있는 나라에는 못난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옵니다. 저는 아주 못난 축이어서 초나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초나라 임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으락 푸르락했다고 한다.

※ 재상 : 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아보던 이품 이상의 벼슬

활동지 ②

안자춘추 - 제나라 경공때 명재상 안자의 두 번째 이야기

<안자춘추> : 중국 춘추시대 말기 제(齊)나라의 명재상 안자(?~BC 500)의 언행을 후대인(後代人)이 기록했다는 책. 제백공명이 즉위한 춘추시대 명재상 안자의 행실과 처세, 지략과 덕망이 담긴 짧은 일화(逸話)를 모은 고전서. 당대 공자가 가르치면서 지식을 모르던 성인이었다면 몸소 실천해 교화되도록 하는 현자였던 안자가 천검(天劍)에게 자신을 낚추고 백성을 돌봤던 일화 215편 수록

제나라 임금 경공이 소화 연못이라는 곳에서 새사냥을 하고 있을 때, 새사냥을 담당하는 직책을 가진 안등취라는 인물이 그만 관리를 잘못해서 새를 놓치자 경공은 화가 나서 그를 바로 죽여버리라고 했다.

그러자 안자가 “저 안등취는 죽을 죄를 여러 가지 범하였으니 그 죄를 상세히 따진 후에 죽이고자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안등취야, 너는 임금을 위하여 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책임을 지닌 사람인데 그것을 소홀히 하여 새를 놓치고 말았으니 이것은 임금을 기만하는 행위로 마땅히 죽어야 할 첫 번째 죄이다.

계다가 그런 너의 잘못으로 인하여 인자하신 우리 임금님께서 새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는 지경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너의 두 번째 커다란 죄다.

또한 여러 나라의 임금들이 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제나라 임금은 새를 중히 여기고 선비를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었으니 이것이 세 번째 죄이다.

끝으로 천자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반드시 우리 임금님을 제후의 자리에서 폐할 것이니 너의 잘못 하나로 우리의 사직을 위협하게 하고 종묘를 끊어지게 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네가 죽어야 할 큰 죄인 것이다.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너는 죽어야 마땅하고 용서란 있을 수 없다.

임금님, 이제 그 죄상을 낱알이 열거하였으니, 이 자를 감히 죽이기를 청하옵니다.

그러자 경공이 말했다.

“그만하면 되었소. 말씀을 잘 알아 들었으니, 죽이는 건 그만두오.”

※ 제후: 천자(天子)의 다음으로 귀(貴)한 사람. 고대 중국에서 천자에 딸려 있으며, 천자에게서 일정한 영토(領土)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의무를 지고, 그 영내(領內)의 인민(人民)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졌던 사람.

※ 왕실과 나라. 宗廟(종묘)는 역대 왕들의 位牌(위패)를 모신 사당, 사직은 토지 신과 곡식 신. 따라서 국가를 나타냄. / 위패: 죽은 사람의 이름과 죽은 날짜를 적은 나무패

활동지 ③

명심보감

모여라 고독(古讀)한 중딩들

☀ **오늘의 고전** : 안자춘추 申 <제나라 경공때 명재상 안자의 첫 번째 이야기>
<제나라 경공때 명재상 안자의 두 번째 이야기>

〈안자춘추〉: 중국 춘추시대 말기 제(齊)나라의 명재상 안영(?~BC 500)의 언행을 후대인(後代人)이 기록했다는 책. 제갈공명이 극찬한 춘추시대 명재상 안자의 행실과 처세, 지략과 덕망이 담긴 짧은 일화를 모은 고전서. 당대 공자가 가르치면서 지칠줄 모르던 성인이었다면 몸소 실천해 교화되도록 하는 현자였던 자가 청렴결백하게 자신을 낮추고 백성을 돌봤던 일화 수록

☀ **나의 마음을 울린 짝 좋은 구절** :

☀ **이 구절을 고른 이유** :

☀ **오늘 수업을 통해 배운점, 느낀점, 실천할 점**

배운점 :

느낀점 :

실천할 점 :

8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모여라 고독(古讀)한 중딩들		
	강 사	이 아 영		
	대 상	고전읽기에 관심 있는 중학생		
	활동기간	2015. 5. 17. ~ 7. 19.	총 차시	10
	장 소	대치1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7월 12일 (일요일) 15:00~ 16:00	안자춘추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서로 돌아가면서 읽다가, 다 읽은 후,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각각 요약해서 다시 이야기해볼 수 있는 사람을 자원 받아 시킨다.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을 고르고, 왜 그 구절을 골랐는지 그 이유도 함께 나누어본다. 지혜로 위기를 모면한 경험이나, 지혜없음으로 위기를 맞이한 경험을 함께 나누어본다.			총 7명
자체평가	중국 춘추시대 말기 제나라의 명재상 안자의 언행과 행실과 처세가 드러나는 두 가지의 일화를 읽은 후, 안자춘추를 읽어보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았다. 8차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까지는 이제까지 선생님과 수업을 통해 여러 가지 고전들을 조금씩 살펴보았는데, 그 중의 한권의 책을 선정해서 이 수업을 마치고 정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 시간까지 자신이 읽을 고전을 생각해 오기로 했는데 안자춘추에 관심을 보이는 친구가 3명이나 있었다.			
기타 의견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계획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차시	9	시간	60분
세부 목표	고전 中 손자병법을 통해 전쟁의 승부를 결정짓는 기본조건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갖춰져야 함을 얘기하며 계획, 전략, 형세 등에 대해 생각해본다.				
선정 자료	손자병법(도서)				
준비물	손자병법 활동지(학생 수만큼)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10')	- 자리 정돈하고 주위를 집중시킨다. - 손자병법이 어떤 책인지 소개하고(동서양의 장수와 각계의 리더들이 앞다퉈 찾는 병법 철학서. 전장에서서의 제승의 원칙뿐만 아니라 치열한 인간 삶 속에서 상대를 이기고 정상에 우뚝 서게 하는 지혜를 담은 책) 병법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음을 이야기 한다.				
전개 (40')	- 손에 색깔 펜을 쥐고 손자병법의 1편 계획, 3편 전략, 4편 형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활동지를 읽게 한다. - 서로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게 선생님이 적당한 길이에서 끊어 읽기를 시킨다. -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을 나누고, 왜 그 구절을 골랐는지 그 이유도 함께 나누어본다. - 손무의 손자병법처럼 내가 관심있는 분야의 지략을 담은 법을 패러디해서 작성해본다.				
정리 (10')	- 활동지에 나의 마음을 올린 짱 좋은 구절, 이 구절을 고른 이유, 오늘 수업을 통해 배운점, 느낀점, 실천할 점을 적어본다. - 다음 차시 안내				

활동지 ①

손자병법(孫子兵法) - 1편 계획

동서양의 장수와 각계의 리더들이 앞다퉈 찾는 병법 철학서. 전장에서의 제승의 원칙뿐만 아니라 치열한 인간 삶 속에서 상대를 이기고 정상에 우뚝 서게 하는 지혜를 담은 책이다. '적을 알고 나는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최선의 전술이다' 등 북후의 명언이 담겨 있는 책으로도 유명하다. 시대와 나라를 초월하는, 단순한 병법서를 넘어 현대적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다.

1. 계획-싸우기 전에 신중히 계획하라 中 일부

손무는 말하였다. 전쟁이란 나라의 중대사이다. 백성의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마당이며, 나라의 보존과 멸망을 결정짓는 길이니, 깊이 삼가며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다음의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다섯가지 기본 요소를 핵심으로 분석하고 (일곱가지) 계획에 따라 정세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이 다섯 가지 요소란 첫째가 저어치이고, 둘째가 기후이고, 셋째가 지리이며, 넷째가 장수이고, 다섯째가 법제이다.

첫째, 정치란 백성으로 하여금 전쟁에 대하여 군주와 똑같은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군주와 더불어 함께 살고 함께 죽으며, 나라의 위기에 부딪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둘째, 기후란 밝음과 어두움, 맑음과 흐름, 마름과 축축함 그리고 추위와 더위 등 여러 기상 조건과 계절의 변화를 말한다.

셋째, 지리란 길의 멀고 가까움, 지세의 험하고 평탄함, 지역의 넓고 좁음, 지형의 죽을 곳과 살 곳으로 (공격과 방어 또는 전진과 후퇴를 결정짓는) 갖가지 지형 조건을 가리킨다.

넷째, 장수란 정세를 손에 쥐는 지략, 상벌을 공정하게 시행하는 믿음, 부하를 아끼고 이끄는 어짐, 작전을 추진하는 결단력, 군기를 엄격하게 유지하는 위엄을 갖춘 자를 가리킨다.

다섯째, 법제란 군대의 조직과 편제 단위, 지휘 통신의 수단인 깃발과 악기의 운영규정, 벼슬 및 계급 체계와 직무의 합리적인 배분, 식량 등 군수물자의 조달과 공급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이 다섯가지 요소는 장수된 자라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깊이 이해하고 장악하고 있다면, 어떤 전쟁이든 승리로 이끌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

3. 전략-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中 일부

전쟁의 승리를 미리 아는 데는 다섯 가지 요건이 있다.

첫째, 싸워야 할 때와 싸워서 안 될 때를 분명하게 판단할 줄 아는 자는 승리한다.

둘째, 병력이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다른 방법으로 지휘할 줄 아는 자는 승리한다.

셋째, (장수와 병사) 위아래의 의지가 하나 되어 단결하면 승리한다.

넷째, 언제나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고 적이 대비없이 틈을 보이기를 기다릴 줄 아는 자를 승리한다.

다섯째, 장수가 유능하여 군주가 작전에 간섭하지 않으면 승리한다.

이상의 다섯 가지가 승리를 알 수 있는 요건이다.

그러므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적을 모르고 나를 알기만 한다면 이기고 질 확률은 절반이 되며

적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른다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4. 형세-반드시 이길 수 있는 형세를 갖추어야 한다 中 일부

손무는 말하였다.

옛날에 전투에 뛰어난 장수는 먼저 적이 아군을 이기지 못할 태세를 갖추고, 적이 허점을 드러내 아군이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를 기다렸다. 그러니 적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조건은 아군 쪽에 달려 있으며, 아군이 적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은 적군 쪽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전쟁에 뛰어난 자라도 적군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아군의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수는 있어도, 아군이 반드시 적군을 이길 수 있도록 적군의 허점을 마음대로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승리란 미리 알 수는 있으나, 그것을 원한다고 마음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적이 승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군의 수비이며, 아군이 승리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은 공격이다. 병력이 부족하면 수비를 하고, 병력이 여유가 있으면 공격을 한다.

수비를 잘하는 장수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땅 속에 숨듯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아군의 역량을 깊숙이 은폐시킨다.

공격을 잘하는 장수는 높디높은 하늘 위에서 행동하듯 어떠한 조건에도 거스를 없이 아군의 역량을 최고도로 발휘한다. 그러므로 아군을 온전하게 보전하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언제나 패배하지 않는 불패의 자리에 서서, 적이 패배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놓고 적과 싸우며,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움을 걸어 놓고 승리를 추구한다.

- 출처 : 홍익출판사 슬기바다총서 시리즈 손자병법 中 1편 계획, 3편 전략, 4편 형세 中 -



손자병법

모여라 고독(古讀)한 중딩들

☀ **오늘의 고전 : 손자병법(孫子兵法) 中 <1.3,4편>**

동서양의 장수와 각계의 리더들이 앞다퉈 찾는 병법 철학서. 전장에서의 제승의 원칙 뿐만 아니라 치열한 인간 삶 속에서 상대를 이기고 정상에 우뚝 서게 하는 지혜를 담은 책이다. '적을 알고 나는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최선의 전술이다' 등 불후의 명언이 담겨 있는 책으로도 유명하다. 시대와 나라를 초월하는, 단순한 병법서를 넘어 현대적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다.

☀ **나의 마음을 울린 짝 좋은 구절 :**

☀ **이 구절을 고른 이유 :**

☀ **오늘 수업을 통해 배운점, 느낀점, 실천할 점**

배운점 :

느낀점 :

실천할 점 :

활동지 ③

손자병법

모여라 고독(古讀)한 중딩들

☀ 오늘의 고전 : 손자병법(孫子兵法) 中 <1.3,4편>

동서양의 장수와 각계의 리더들이 앞다퉈 찾는 병법 철학서. 전장에서의 제승의 원칙 뿐만 아니라 치열한 인간 삶 속에서 상대를 이기고 정상에 우뚝 서게 하는 지혜를 담은 책이다. '적을 알고 나는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최선의 전술이다' 등 불후의 명언이 담겨 있는 책으로도 유명하다. 시대와 나라를 초월하는, 단순한 병법서를 넘어 현대적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까?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퇴(百戰不退)라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패(百戰不敗)라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

知 : 알 지/ 彼 : 저 피 / 知 : 알 지/ 己 : 몸, 자기 기

百 : 일백 백/ 戰 : 싸울 전 / 不 : 아닐 불/ 殆 : 위태할 태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구절이다. 원문에는 백전불태라고, '패'는 싸워서 지는 것이고 '태'는 지기이전에 상대보다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즉, 지피지기를 하면 위험한 상황조차 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서 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손무의 손자병법처럼 내가 관심있는 분야의 지략을 담은 법을
대단히해서 작성해보세요.

예) 철수학법(學法): 철수의 공부에 대한 생각

영희효법(孝法): 영희의 효에 대한 생각

○○○○

9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모여라 고독(古讀)한 중딩들		
	강 사	이 아 영		
	대 상	고전읽기에 관심 있는 중학생		
	활동기간	2015. 5. 17. ~ 7. 19.	총 차시	10
	장 소	대치1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7월 19일 (일요일) 14:00~ 15:00	손자병법의 1편 계획, 3편 전략, 4편 형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활동지를 읽게 한다.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을 나누고, 왜 그 구절을 골랐는지 그 이유도 함께 나누어본다. 손무의 손자병법처럼 내가 관심있는 분야의 지략을 담은 법을 패러디해서 작성해본다. 예) 철수학법(學法), 영희효법(孝法)			총 7명
자체평가	손무의 손자병법을 읽고 자신이 관심있어하는 분야의 지략을 담아 작성한 학생들의 글은 진짜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놀라웠다. 이처럼 딱딱한 고전을 이용해 수업을 했는데, 창의성이 뛰어난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고전의 재탄생이 이루어진듯했다. 학생들의 작품을 혼자 보기 아까워서 활동지 사진에 넣었다.			
기타 의견				

9차시 활동 사진

모여라 고독(古讀)한 중딩들		
2015. 07.19		
*오늘의 고전 : 손자병법(孫子兵法) 中 <1.3,4편> 동서양의 장수와 각계의 리더들이 앞다뒀 찾는 병법 철학서. 전장에서의 제승의 원칙뿐만 아니라 치열한 인간 삶 속에서 상대를 이기고 정상에 우뚝 서게 하는 지혜를 담은 책이다. '적을 알고 나는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최선의 전술이다' 등 불후의 명언이 담겨 있는 책으로도 유명하다. 시대와 나라를 초월하는, 단순한 병법서를 넘어 현대적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다.		
*나의 마음을 울린 짝 좋은 구절 : (장수와 병사)위아래의 의지가 하나 되어 단결하면 승리한다.	적을 알고 나는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전쟁을 잘하는 자는 언제나 포획하지 않는 불과의 자라에 서서 적이 패배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 구절을 고른 이유 : 무엇이든 단결하면 가능하다는 많은 말이 들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언제나 준비성이 필요한 나에게 꼭 들어맞아서.
*오늘 수업을 통해 배운점, 느낀점, 실천할 점 배운점 : 단결하면 승리한다. 느낀점 : 일상생활은 전쟁과 일리한다. 실천할 점 : 준비성을 기우자.		

모여라 고독(古讀)한 중딩들

2015. 07.19

※오늘의 고전 : 손자병법(孫子兵法) 中 <1.3,4편>

동서양의 장수와 각계의 리더들이 앞다퉈 찾는 병법 철학서. 전장에서의 제승의 원칙뿐만 아니라 치열한 인간 삶 속에서 상대를 이기고 정상에 우뚝 서게 하는 지혜를 담은 책이다. '적을 알고 나는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최선의 전술이다' 등 불후의 명언이 담겨 있는 책으로도 유명하다. 시대와 나라를 초월하는, 단순한 병법서를 넘어 현대적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200%라?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퇴(百戰不退)라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패(百戰不敗)라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

知 : 알 지/ 彼 : 저 피 / 知 : 알 지/ 己 : 몸, 자기 기
 百 : 일백 백/ 戰 : 싸울 전 / 不 : 아닐 불/ 殆 : 위태할 태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구절이다. 원문에는 백전불태라고, '태'는 싸워서 지는것이고 '태'는 지기이전에 상대보다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즉, 지피지기를 하면 위험한 상황조차 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서 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손무의 손자병법처럼 내가 관심있는 분야의 지략을 담은 법을 패러디해서 작성해보세요.

예) 철수학법(學法): 철수의 공부에 대한 생각
 영희효법(孝法): 영희의 효에 대한 생각

규영학법

1. 계획이 실천보다 중요하다.
2. 200%의 자신을 발휘해라
3.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호신을 다해 집중해야
그것이 진정한 집중이다.
4. 놀 땐 놀고 공부할땐 해야 한다.
5. 공부를 극복하는 방법은 공부 밖에 없다.

손무의 손자병법처럼 내가 관심있는 분야의 지략을 담은 법을 패러디해서 작성해보세요.

예) 철수학법(學法): 철수의 공부에 대한 생각

영희효법(孝法): 영희의 효에 대한 생각

여 유 요 법

마음을 여유롭게 먹는 데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남을 보지 마라. 남이 나보다 잘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둘째, 나를 너무 보지 마라. 지난번보다 못해도 괜찮다. 그동안 얼마나 늘었는지를

계산하지 마라. 동시에 앞으로 얼마만큼 늘어야 하는지도 세지 마라.

셋째, 모든 일을 집중해서 해라. 집중하면 집중하지 않음에서 오는 불안감을 덜고

여유를 벌 수 있다.

넷째, 너무 많은 것에 욕심내지 마라. 의욕은 좋지만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거기에 자부심을 가져라.

자부심에서 진정으로 여유로운 모습이 온다.

● 여유요법 ●

마음을 여유롭게 먹는 데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남을 보지 마라. 남이 나보다 잘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둘째, 나를 너무 보지 마라. 지난번보다 못해도 괜찮다. 그동안 얼마나 늘었는지를 계산하지 마라. 동시에 앞으로 얼마만큼 늘어야 하는지도 세지 마라.

셋째, 모든 일을 집중해서 해라. 집중하면 집중하지 않음에서 오는 불안감을 덜고 여유를 벌 수 있다.

넷째, 너무 많은 것에 욕심내지 마라. 의욕은 좋지만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거기에 자부심을 가져라. 자부심에서 진정으로 여유로운 모습이 온다.

간 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서 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손무의 손자병법처럼 내가 관심있는 분야의 지략을 담은 법을 패러디해서 작성해보세요.

예) 철수학법(學法): 철수의 공부에 대한 생각

영희효법(孝法): 영희의 효에 대한 생각



- 1) 먹을 때는 먹는 것만 집중하고 불평없이 먹는다.
- 2) 끼니는 거르지 않고 제때 먹는다.
- 3) 나눠 먹을 때 그 행복이 증가하므로 친구와 나눠먹거나 가족과 나누어 먹는다.
- 4)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는 신중히 계획하고 먹는다.
- 5) 내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아무리 맛있어도 먹지 않는다.
- 6) 음식은 남기지 않고 적당히 먹을 만큼 퍼서 먹는다.

적당히

● 유은식법 ●

- 1) 먹을 때는 먹는 것만 집중하고 불평없이 먹는다.
- 2) 끼니는 거르지 않고 제때 먹는다.
- 3) 나눠 먹을 때 그 행복이 증가하므로 친구와 나눠먹거나, 가족과 나누어 먹는다.
- 4)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는 신중히 계획하고 먹는다.
- 5) 내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아무리 맛있어도 먹지 않는다.
- 6) 음식은 남기지 않고 적당히 먹을 만큼 퍼서 먹는다.

손무의 손자병법처럼 내가 관심있는 분야의 지략을 담은 법을 패러디해서 작성해보세요.

예) 철수학법(學法): 철수의 공부에 대한 생각

영희효법(孝法): 영희의 효에 대한 생각

쥬 빈 쥬 법

- 쉴 때는 시간을 정하여 쉰다.
- 너무 과하게 쉬지 말아라.
- 10분 이상은 쉬지 말아라.
- 눈치를 보면서 쉰다.
- 절대 게임을 하지 않는다.
- 공부를 마땅히 하고 쉰다.

● 쥬 빈 쥬 법 ●

쉴 때에는 시간을 정하여 쉰다.

너무 과하게 쉬지 말아라.

10분 이상은 쉬지 말아라

눈치를 보면서 쉰다.

절대 게임을 하지 않는다.

공부를 마땅히 하고 쉰다.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禮(예)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차시	10	시간	60분
세부 목표	고전 中 소학의 2편. 인간의 길 중 하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중 일부를 발췌해서 禮에 대해서 생각해보는다.				
선정 자료	• 소학(도서)				
준비물	• 소학 활동지(학생 수만큼)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비고
도입 (10′)	• 자리 정돈하고 주위를 집중시킨다. • 소학이 어떤 책인지 소개하고(주자가 제자인 유청지에게 어린아이들을 학습 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진 서적을 편집하게 하고, 그 자신이 직접 교열 가필한 책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에 대한 애정, 물질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얼룩진 오늘날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 단초를 제공하는 고전 중의 고전이다.) 몇 편으로 구성되었는지 제목을 다 같이 읽어 본다.				
전개 (40′)	• 손에 색깔 펜을 쥐고 소학 활동지를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나오면 밑 줄을 칠 수 있게 한다. • 서로 돌아가면서 한 장씩 소리 내어 읽는다. • 현재의 시대에 맞게 바꾸면 좋을 것 같은 구절을 찾아, 나름대로 바꾸어 보게 한다. • 내가 기대하는 우리집에서의 禮를 적어본다. • 내가 기대하는 학교에서의 禮를 적어본다. • 적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본다.(시간을 따라 발표량 조정) • 마지막 차시이므로 그동안 함께 수업했던 명심보감, 몽구, 논어, 안자춘추, 손자병법, 소학 중 내가 읽고 싶은 고전을 정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정리 (10′)	• 활동지에 나의 마음을 울린 짙은 구절, 이 구절을 고른 이유, 오늘 수업을 통해 배운점, 느낀점, 실천할 점을 적어본다. • 이 수업을 마친 후, 혼자 읽어보고 싶은 고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활동지 ①

소학(小學) - 제 2편 인간의 길 중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주자가 제자인 유철에게 어린아이들을 학습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진 서적을 편집하게 하고, 그 자신이 직접 교열 가필한 책이다. 명문대가에서는 이 책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에는 먼저 마음을 차분하게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사물을 자세히 살펴서, 공손하고 경건한 태도를 가지도록 가르쳐야 한다." 등 아이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르침으로써 자녀를 올바른 길로 안내해왔다.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에 대한 애정, 물질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얼룩진 오늘날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 단초를 제공하는 고전 중의 고전이다.

하나.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明父子有親) 397까지 申

2. 이른 아침에 해야 할 일

모든 안팎의 사람들은 첫닭이 울면 모두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옷을 입는다.
베개와 대자리를 걷고 방과 마루,
뜰에 물을 뿌리고 청소한 다음 자리를 펴놓는다.
그런 다음에 각자가 맡은 일을 한다.(『예기』 「내칙」)

4. 부모 앞에서 금기

부모나 시부모가 있는 곳에서는,
부모나 시부모가 명하면 빨리 응답하고 공손하게 대답한다.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물러서며 이리저리 돌아설 때는 조심하고 삼가며,
마루를 오르거나 내려가며 방문을 출입할 때는
몸을 굽히고 펴는 것을 법도에 맞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구역질, 트림, 재채기, 기침, 하품, 기지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한쪽 발로 비스듬히 서거나 다른 것에 몸을 기대지 않으며,
결눈질해서 보지 말아야 한다.
또 감히 침을 뱉거나 코를 풀어서도 안 된다.
날씨가 추워도 옷을 꺼입지 않고,
가려워도 가려운 곳을 긁지 않으며,
활쓰거나 글씨를 쓰는 경우가 아니면 상의를 벗어 팔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물을 건널 때가 아니면 하의를 걷어올리지 않으며,
더러운 옷과 이불은 속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부모의 가래침과 콧물은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며,
관과 띠에 때가 묻어 있으면 잣물을 타서 빨기를 청한다.
의복에 때가 끼어 있으면 잣물을 타서 빨기를 청하고,
의복이 터지거나 찢어졌으면 바늘에 실을 꿰 다음에 꿰매기를 청한다.
젊은 사람이 나이가 든 사람을 섬기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길 때에는 모두 이 예절을 따라야 한다.(『예기』 「내칙」)

14. 시선은 얼굴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덕과 지위가 높은 대인과 말할 때
처음에는 얼굴을 보고,
다음에는 가슴을 보고,
마지막에는 다시 얼굴을 보며,
자신의 바른 몸가짐을 고치지 말아야 한다.
자리에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있을 경우에는 눈을 움직일 수 있지만,
시선이 얼굴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되고
허리띠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만약 말을 하지 않고 서 있으면 발을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 무릎을 쳐다보아야 한다.(『예기』 「사상견례」)

15. 부모가 부르면 밥도 뵈고 간다.

아버지가 명령해 부르면 빨리 대답해야지, 천천히 대답해서는 안 된다.
손에 일감을 잡고 있으면 던져 버리고,
입에 음식을 씹고 있으면 뱉어 버리고 가야 한다.
갈 때는 뛰어가야 하며, 종종걸음으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
부모가 늙으면 자식은 외출할 때에 가는 곳을 바꿔서는 안 되며,
돌아올 시간을 어겨서도 안 된다.
부모가 병들었을 때는 얼굴 빛을 편하게 가지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효자의 대체적인 예절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의 책을 차마 읽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의 손때가 남아 있기 때문이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쓰던 그릇을 차마 쓰지 못하는 것은
어머니의 입김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예기』 「육조」)

활동지 ②

소 학

모여라 고독(古讀)한 중딩들

☀ **오늘의 고전 : 소학(小學) 中 2편 인간의 길**

주자가 제자인 유청지에게 어린아이들을 학습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진 서적을 편집하게 하고, 그 자신이 직접 교열 가필한 책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에 대한 애정, 물질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얼룩진 오늘날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 단초를 제공하는 고전 중의 고전이다.

☀ **내가 기대하는 우리 집에서의 禮 :**

☀ **내가 기대하는 학교에서의 禮 :**

활동지 ③

소 학

모여라 고독(古讀)한 중딩들

☀ **오늘의 고전 : 소학(小學) 中 2편 인간의 길**

주자가 제자인 유청지에게 어린아이들을 학습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진 서적을 편집하게 하고, 그 자신이 직접 교열 가필한 책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에 대한 애정, 물질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얼룩진 오늘날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 단초를 제공하는 고전 중의 고전이다.

☀ **나의 마음을 울린 짝 좋은 구절 :**

☀ **이 구절을 고른 이유 :**

☀ **오늘 수업을 통해 배운점, 느낀점, 실천할 점**

배운점 :

느낀점 :

실천할 점 :

10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 제 명	모여라 고독(古讀)한 중딩들		
	강 사	이 아 영		
	대 상	고전읽기에 관심 있는 중학생		
	활동기간	2015. 5. 17. ~ 7. 19.	총 차시	10
	장 소	대치1작은도서관		
일 시	수 업 내 용			참석인원
7월 19일 (일요일) 15:00~ 16:00	소학 활동지를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나오면 밑줄을 칠 수 있게 하고, 현재의 시대에 맞게 바꾸면 좋을 것 같은 구절을 찾아, 나름대로 바꾸어 보게 한다. 내가 기대하는 우리집에서의 禮를 적어본다. 내가 기대하는 학교에서의 禮를 적어본다. 적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본다.(시간을 따라 발표량 조정)			총 7명
자체평가	마지막 차시이므로 그동안 함께 수업했던 명심보감, 몽구, 논어, 안자춘추, 손자병법, 소학 중 내가 읽고 싶은 고전을 정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메르스로 인해 수업 종료 시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마지막 차시는 학생들의 방학식 이후에 시행되었다. 그래서 방학하자마자 여행을 떠난 친구들로 인해 전원이 참석하지는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읽어보고 싶은 고전이 생겼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타 의견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문고전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특별히 참여대상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시험기간이나 방학기간등을 피해 운영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려하여 계획했음에도 메르스라는 비상사태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